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3340호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마켓]
상남자 김남구의 역전행보
10

코스피 1997.27 (+0.68)
코스닥 667.21 (+10.51)
금리(국고채 3년) 1.80 (+0.02)
환율(원·달러) 1156.00 (-2.50) 〈11일〉

14일, 서울 도심서 10만명 집회 비상

주말 논술교통 대란 서민경제 찬물 우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등 대정부 현안에 반발하는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이번 주말에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에서 논술·면접시험을 볼 예정이어서 서울 도심 일대에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주최 측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10만명이 참가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극심한 교통대란이 자칫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아 대학입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노동·시민·농민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최대 10만 명이 결집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연다.

광우병 사태 이후 최대 규모
국정교과서·노동 개혁 반발
민주노총 등 53곳 궐기 예고

고려대 등 12개大서 논술고사
응시자 11만명 교통대란 우려

이날 집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세월호 참사,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쌀값 폭락 등 다양한 문제에서 현 정부의 실패와 불통에 대해 규탄 할 예정이다. 참가 단체는 아침부터 태평로와 서울역 광장, 대학로, 서울광장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한다. 이날 하루 종로,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일대에서 예정된 행진은 13건이다.

문제는 이날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 12개 대학이 오전 8시~오후 7시 면접·논술고사를 치른다는 점이다. 이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11만4000여명에 달한다. 2곳 이상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통상 택시나 퀵서비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온 만큼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7년 만에 대규모 시위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통행을 차단하면서 시민은 물론, 명동과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도심 관광객들의 서울 도심 기피 현상이 우려돼서다.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은 물론 시위 장소 인근 사업체의 영업 손실, 경찰 투입에 따른 공공비용 등 사회적 손실액도 상당하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폭력 집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은 2010년 3조30억원에서 2012년 4조6410억원으로 50%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미란 기자 actor@

롯데 "스타트업과 소통을…"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데이 부회장, 그리고 30개 스타트업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에서 진행된 '롯데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데이'에 참석한 롯데 신동빈 회장(앞줄 가운데)과 이인원 /연합

좀비기업 313곳… 구조조정 속도 낸다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우량 회사채 발행 잔액만 24조원에 달하고,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제회복을 위해선 '좀비기업' 정리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잔액 24조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건설·조선·석유화학·항공운송·해상운송·철강 등 이슈업종의 비우량등급(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잔액은 10월 말 기준 총 23조99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이 6조 21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과 석유화학의 발행잔액도 각각 5조4350억원, 5조2530억원이었다. 항공, 해상, 육상 등 운송업종의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 잔액은 5조 6307억원이었다. 철강은 우량등급인 포스코가 빠지면서 잔액이 1조 4608억원에 불과했다. 또 A등급 이하 회사채 두 개 중 한 개(52.8%)는 크레딧(신용) 이슈 업종에 속해 있었다.

강화된 기준에서 한계기업은 313개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범위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을 기록한 기업으로 확대해서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우량기업 회사채 잔액 24조 육박

이 중 현재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혹은 유효등급은 없지만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기업)은 총 45개로 15% 정도이다.

이자보상배율이 2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가운데 3년간 매출액 감소와 영업적자를 낸 곳은 44개(14%)였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손소현 연구원은 "회사채 발행잔액이 큰 기업들도 꽤 많아 주의해야한다"면서 "현대상선, 대성산업, 한국자원투자개발, 마니커, 바른손, 코데즈컴바인 등 6곳이 교집합에 있다"고 전했다.

◆ 기업스스로 자발적 구조조정이 해법

'벌거벗은 임금님'. 안데르센 동화 중 손꼽히는 명작이다. 사기꾼 재봉사가 임금을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옷이 완성된 날 왕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옷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왕은 있지도 않은 옷을 입는다. 신하들은 멋진 옷이라고 칭찬한다. 한 아이가 거리행진 중인 왕을 보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친 뒤에야 왕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장에서는 기업 자신도 '군중보다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박 겉핥기식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넘어갈 것 이라고 내실 다지기에 소홀한 기업들이 있다면, 군중들의 박수 소리보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논란에 사로잡혀서도 안된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4조2000억원, 42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데 논란이 있다.

김진성 우리금융연구소 실장은 "주요 산업내 부실기업 정리,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 등이 자칫 산업내 플레이어를 축소해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비효율적인 대형화를 통해 자칫 구조조정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을 독려하고, 기업 구조조정 유형별로 소위 '시범케이스'가 아닌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 모범사례를 이른 시일 내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면에 계속

/김문호·김보배 기자 kmh@metroseoul.co.kr

수능 정답 '메트로' 통해 확인하세요

2016 수능 특별판 발행
서울 전역 종료 직후 배포

메트로신문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오후 특별판을 제작, 고사장을 나선 수험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특별판에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능 시험 정답을 문제지와 함께 담았습니다.

또한 올해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해설과 분석도 담았습니다. 귀가길에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세요.

수능 시험 이후 불과 이틀 뒤 대학별 고사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실전 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전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수능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신나는 이벤트와 영화, 공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수험생을 위해 인기상품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혜택을 한껏 누려보세요.

지난해 발행한 메트로 수능 특별판.

에 무슨 일이… 아이폰 6s 부품 10% 주문 급감

스위스 투자銀, 2017년 성장률 6%로 낮춰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 6s의 부품 주문을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3.15% 급락했다. 아이폰 수요가 급감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 CNBC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이날 공개한 투자노트에서 "애플이 아이폰6s의 부품 주문을 10%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폰 6s에 대한 수요가 약함에 따라 부품 주문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마 현재 분기(10~12월)에 아이폰 생산대수가 8000만대 이하로 떨어지고 내년 1분기(1~3월)에는 5500만~600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년 아이폰 판매 전망을 기존의 2억4200만대에서 2억2200만대로 낮춰잡았고 2017년 연간 성장률도 6%로 낮췄다. 애플이 아이폰 6s에 화면을 터치하는 강도에 따라 조작 내용이 바뀌는 새 기능을 도입했으나 이에 대응하는 어플 수의 부족이 판매부진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크레디트스위스는 애플의 주식에 대해 매도를 권하지는 않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애플의 주가는 100~130 달러를 맴돌 것"이라며 "주가가 하락할 때가 투자 포인트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4인치 화면의 소형 아이폰이 앞으로도 발매될 것으로 예측되고 기기 교체 수요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아이폰의 매상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앞서 차이나데일리도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페가트론이 아이폰의 판매 부진으로 고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 6s를 올해 9월에 발매했다. 애플은 세계 판매 대수가 발매 개시 이후 3일 동안 1300만 대를 넘으며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의 6s 단독 판매 대수는 공표되지 않아 판매 부진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투자노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이 같은 비관론에 반박이 만만치 않다. 댄 아이브스 FBR 캐피털 선임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CNBC에 "3개월 전에도 아이폰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바 있다.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 연말 쇼핑시즌 판매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내년 1~2분기에 부진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을 좀 더 멀리서 볼 시점이다. 여전히 판매 채널 상의 강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성장세는 미미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기대감이 큰 아이폰7 출시를 앞둔 영향"이라고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한줄 News

정치·사회·국제

▲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0차 국장급 협의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차기협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 신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출마 지역에 얼굴을 알리고 공천 경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여야가 절충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가뭄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당정이 2043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 6s의 부품 주문을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3.15% 급락했다.

금융증권·산업

▲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300여곳에 달해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설·조선·석유화학·항공운송·해상운송·철강 등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잔액만 24조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 국내 지주사 체제가 도입한지 15년.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탄생한 금융지주 체제는 합격점을 받았으나, 금리 장사 및 더딘 해외 진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았다. 대형화·겸업화한 금융지주의 소득과 체질 변화에 대해 들여다봤다.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1256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하며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 현대그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진행해온 현대증권 등 금융 3사 매각이 지난달 무산된 데다 이달 들어서는 부실(不實)에 허덕이는 핵심 계열사 현대상선이 매각설에 휩싸였다.

유통 생활

▲ 롯데쇼핑과 금천패션아울렛단지 연합회가 진실게임을 시작했다. 연합회는 롯데의 금천구 진출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는 롯데는 진출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 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가 오는 11월 22일과 24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한국팬과 만난다.

'뉴 메트로 2015 재도약 선포식' 성황리 개최

"수준 높은 경제·생활밀착 뉴스로 차별화"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

라이프 컨텐츠 확대 등 데일리 매거진 형태의 경제지 전환 공식 발표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이 11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 메트로 2015 재도약 선포식'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이후 강형문 전 금융연수원장, 이철우 국회의원(오른쪽 사진), 이 대표이사, 용연상 서울메트로 홍보처장(가운데 사진 왼쪽부터)이 축하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대표이사 이장규)이 '뉴 메트로 2015 재도약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다.

메트로신문은 11일 오전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 지하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뉴 메트로 2015 재도약 선포식'을 열고 데일리 매거진 형태의 경제지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트로신문은 기존의 종합일간지 성격에서 벗어나 경제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뉴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메트로신문은 이날부터 기존의 타블로이드판형에서 베를리너판으로 바꿨다. 독자층도 2040세대를 겨냥해 지하철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과 금융권, 쇼핑몰, 백화점 등 주요 다중생활 시설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는 이날 재도약 선포식에서 "무료신문의 강력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경제뉴스로 기존의 경제지와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과 창업에 도전하는 가장, 재충전을 모색하는 직장인과 육아를 고민하는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폭넓은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트로라는 브랜드를 살려 지하철을 이용하는 2040세대를 위한 지역 밀착형 뉴스와 라이프 컨텐츠를 폭넓게 소화할 예정이라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이날 선포식에서 이 대표는 과거 메트로의 부적절한 기사와 지면에 대해 사과했다. 정론지를 벗어났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을 비롯해 이봉철 롯데그룹 부사장, 최선목 한화 부사장, 강형문 전 금융연수원장, 용연상 서울메트로 홍보처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 여은주 GS그룹 전무 등 국회의원, 주요기업과 금융사 임원 280여명이 참석해 메트로의 미래 비전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이통사, 무전기 서비스 잇단 출시… 속내는?

LGU+·KT 이어 SKT도 출시 앞둬

데이터 사용량 증대 효과 기대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을 무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무전기처럼 쓸 수 있는 '푸시 투 토크'를 이달 하순께 출시할 예정이다.

롱텀에볼루션(LTE) 무전기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내놓은 'LTE 무전기'가 시초다. 경쟁사 고객에게도 개방된 이 서비스가 현재까지 가입자 30만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자 KT가 최근 '올레 워키토키'를 출시했고, SK텔레콤도 이에 질세라 비슷한 상품으로 맞불을 놓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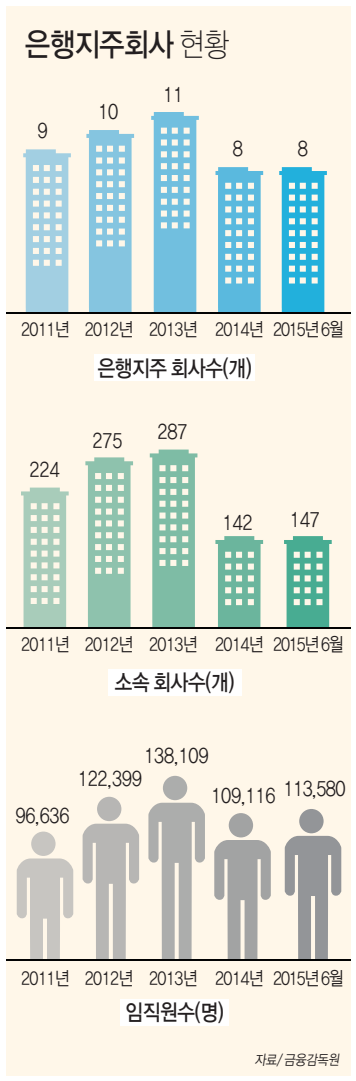
업계는 대화방을 만들어 한꺼번에 수 십 명씩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등산이나 운동 등 야외 활동 시 유용하다고 설명한다.

이통사는 이처럼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데이터 사용량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마트폰 무전기로 대화를 하려면 참여자가 앱을 구동하고 참여자를 초대해 무전 대화창이 열리는 순간 1분당 대략 0.5메가바이트(MB) 안팎의 데이터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등산이나 야영 등의 야외 활동이 보통 1시간 이상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무전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당 최소 50MB(90준 기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경우 데이터 1MB당 20원씩 붙는 현행 이동통신사의 요율에 따라 1000원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전기 서비스는 동영상 시청 때처럼 다량의 데이터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오랜 시간 사용하게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사로서는 '티끌 모아 태산'에 이르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도입 15년… 시너지 위해 지금도 체질개선 중



금융지주사의 빛과 그림자

② 겸업·대형화… 한국 금융사 변화의 한 획

일부 "시너지 약해" 지적 속
위기 대응력 확보는 '합격점'

국내에 지주사 체제가 등장한 해는 지난 2001년. 벌써 이 체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다 돼 간다.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탄생한 금융지주 체제는 은행의 위기 대응력 측면에서 합격점이다. 또 새로운 금융산업의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다만 은행으로 편중된 자산포트폴리오, 금리 장사, 더딘 해외 진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형화·겸업화 금융지주의 소득

가장 큰 소득이라면 대형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총자산은 1499조9000억원이다. 전년보다 404조3000억원(21.2%) 감소했지만, 해산한 3개 지주사를 빼고 8개 은행지주사만 놓고 보면 총자산이 1년 전보다 186조2000억원(9.8%)이 늘었다. 특수요인을 배제하면 은행지주회사의 자산이 늘었다는 의미다.

은행지주회사 중에선 신한지주의 자산이 338조원으로 1년 전에 이어 1위를 이어갔다. 농협이 315조7000억원, 하나가 315조5000억원, KB지주가 308조4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 측면에선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를 인수한 농협지주의 자산이 가장 크게(61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 영토를 확장하는 기반이 됐다.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163개(37개국)로 전년 말 대비 1개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에서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10%를 넘어서고 있다.

'복합점포'를 통해 겸업화도 진척을 보였다. 다만 시너지가 아직 크지 않아 금융지주 무용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주사의 역할을 ▲그룹 전체 전략 수립 ▲계열사 시너지를 통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통합적 리스크 관리 등 3가지라고 지적하며 금융지주사 무용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위기에 강한 체질로 업그레이드 중

금융지주의 체질 변화와 영토 확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무용론이 제기될 때도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오히려 금융지주 체제의 모범사례로 거론됐다.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생명으로 이어지는 자회사 포트폴리오는 은행 의존도가 높은 타 금융지주와 확실한 차별 사례로 손꼽힌다.

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조직해 이사회가 CEO 승계 과정 전반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우 회장의 창립 기념사를 보면 신한금융이 그리는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그는 "그룹사가 가진 역량을 결집해서 고객에게 '하나의 회사'로 다가가야 한다. 은행과 증권간 협업 모델의 표준을 만들고 종합금융서비스 대상 고객을 확대해 창조금융플라자와 PWM라운지를 출범시켰다"면서도 "단순히 협업을 위한 틀을 마련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룹 전체가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는 "체질을 바꾸고 몸을 가볍게 해야 경쟁 은행을 따라잡을 수 있는 '스피드와 지구력'을 갖출 수 있다"며 임직원들에게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기반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높여 대손 비용을 줄였다"며 "또한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 인수에 나선 것도 이런맥락에서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통합'에서 길을 찾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통합 이후 자산관리와 외환업무 등 기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가진 장점을 고스란히 흡수해 해당 부문에서 다른 은행들을 선도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이익 기준 국내 1위 은행 ▲글로벌 비중 40% ▲비은행 비중 30% ▲브랜드 신뢰도 제고 등의 전략 목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국내 최대의 협동조합 조직인 농협중앙회 계열이라는 특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가 이와 관련해 중점 검토하는 것은 모회사(농협중앙회)와의 협업 강화다.

해외진출에도 의욕을 보인다. 농협금융지주는 자회사인 NH농협은행, NH농협증권·NH농협생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 전략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은행에 있던 프라이빗에쿼티(PE·사모투자전문회사) 영역은 내년 1월 NH투자증권으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보수적인 은행문화보다는 투자증권 쪽이 자산운용을 좀 더 전문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업에서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라고 강조하는 김 회장은 자체 감리제도도 최근 도입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5곳

>> 1면에서 계속

금융당국은 11일 175개 중소기업을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경기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때문에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빨라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년 간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방치했다가는 오는 12월 미국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무더기로 쓰러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보다 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해 좀비기업에 대해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15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부채가 500억원 미만인 1만7594개 중소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19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위험도는 A~D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C~D등급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분류된다.

올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기업은 70곳, 법정관리 신청대상인 D등급을 받은 기업은 105곳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곳, 34곳이 증가했다. 모두 175곳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지목됐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평가대상 기업이 지난해보다 20% 늘었다"며 "채권은행들이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5개사로 전년 대비 29개사가 증가했다. 비제조업은 70개로 지난해에 비해 21개사가 늘었다.

제조업은 전반적인 업황부진으로 전자부품(19개), 기계 및 장비(14개), 자동차(12개), 식료품(10개) 등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비제조업은 해운경기 부진 및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운수업(9개), 도소매업(14개), 부동산업(13개), 오락 및 레저서비스업(8개) 등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늘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당금 증가에 따른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하락폭은 6월 말 기준 14.09%에서 0.03%p에 그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권이 구조조정 대상 175개 기업에 빌려준 전체 신용공여액은 9월 기준 총 2조2204억원 규모다. 이들 기업 구조조정에 추진에 따라 은행권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4504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필요한 충당금은 7524억원이지만 9월 말 현재 3020억원이 쌓여있어 나머지만 더 적립하면 된다.

금감원은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금융지원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호·김보배 기자 kmh@

선거구 획정 농어촌 배려해주세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이틀 남긴 1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지도부가 국회 의원식당에서 '4+4 회동'을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여야 농어촌 의원들이 '농어촌 지방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에게 "농어촌 지방 선거구 꼭 현재상태로 유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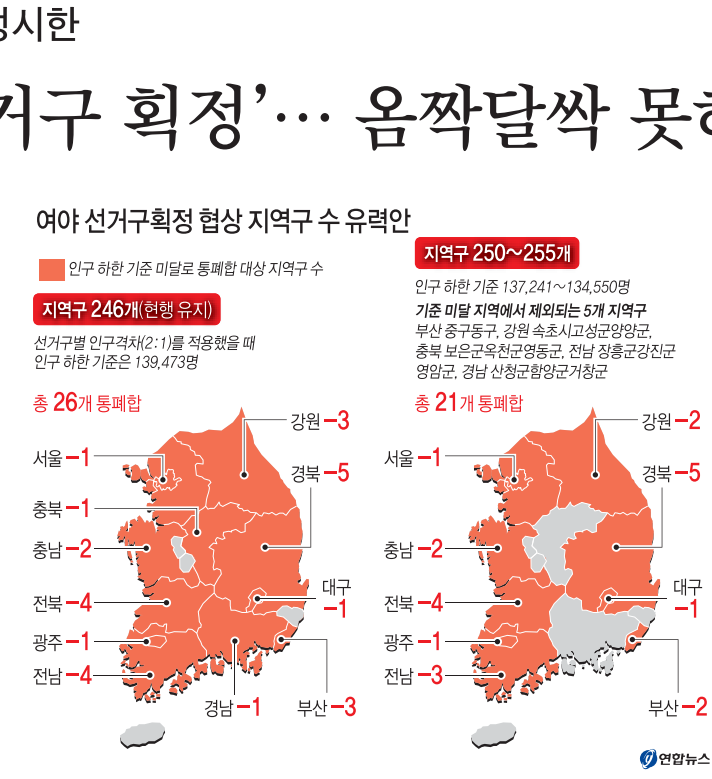
속절없는'선거구 획정'… 옴짝달싹 못하는 與野

핵심 쟁점 이견차 여전
내일 회동 재개하기로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 신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출마 지역에 얼굴을 알리고 공천 경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여야가 절충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 밤에 이어 11일에도 재회, 선거구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없이 종료됐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정오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 논의의 쟁점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의원정수를 늘리기 어렵고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를 1% 늘리는 303명 안을 제시했다. 지역구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고, 감축해야 할 경우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를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새정치연합은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열세 지역인 영남에서 야권의 의석확보가 확대되고 이를 고리로 정의당과 연대할 경우 총선 승리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이 가능해져 원활한 국회운영이 어려운데다 영남에서 야권이 얻는 의석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얻는 의석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두 대표의 확고한 주장은 당내 계파와도 관련이 깊다. 김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고리로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로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런 입장이다. 문 대표 역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당내 비노계(비노무현)의 농어촌 지역구 존치 주장을 모른척할 수 있다.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각각 소폭 늘려 두 대표에게 명분을 주는 형태로 협상이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될 경우 김 대표는 농어촌 지역구는 지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막은 모양새가 된다. 문 대표도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막고 호남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켰다는 명분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성사시키지 못해 예상되는 당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자녀에게 손 안벌리려면… 노후 자금용 연금저축 꼼꼼히

직장인이 들어야 할 필수보험은

자녀양육·질병치료는 필수
의료실비·건강보험 챙겨야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보험의 종류도 많아져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100세시대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의 종류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 후 평균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자녀양육과 질병치료 등을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을 때 신체적·경제적 안전장치(보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을 망설이거나 상품 우선순위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장인을 위한 필수보험은 연금저축보험, 의료실비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하는 부분이다. 공적 연금 이외에 개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연금에 가입해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중도이탈자금을 방지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넣는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포함, 총 7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가 돼 세금 절약에 유리한 연금 상품이다. 원금은 보장받고 종신형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할 경우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절감돼 오프라인 대비 할인된 보험료로 높은 연금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은 계약 후 3개월 만에 해지해도 해지환급률 95% 이상을 보장한다. 또 예상 연금액 실시간 확인과 목표 연금액 달성을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와 입원비 부담 경감…의료실비보험

직장인은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크고 작은 질병을 갖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빈도와 종류가 다양해지며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비례해 증가하기 마련이다.

의료실비보험은 치료비와 입원비, 약제비 등 생활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미리 가입해두면 뜻밖의 사고를 겪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치료와 중대질병의 경우 특약 추가가 필요하므로 가입 전 보장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

KB손해보험의 '(무)KB손보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상해와 질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손담보만 모아 실속 있는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금에 따라 표준형, 선택형Ⅱ 가운데 고를 수 있다.

◆3대 질병 미리 준비하는 건강보험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포함해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병을 앓는 환자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물론 치료와 동시에 사회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발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으로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과 치료비가 높아지는 만큼, 건강보험은 연령별 보험료 차등이 존재한다. 가입 했더라도 면책·감액기간 조건이 있어 되도록 미리 준비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연금기능을 결합한 상품도 다수 출시돼, 이를 활용해 보장혜택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AIA생명의 '(무)실속하나로건강보험'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보험료 변동 없이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 생존 시 100% 환급(만기환급형 선택시)을 보장한다. 최고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김성수 하나생명 마케팅부장은 "젊은 시절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의심하기 쉽지만, 뜻밖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게 보험"이라며 "수입원이 있을 때 필수 보험을 차근차근 마련해 놓는다면 매년 세액공제는 물론 폭넓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라면, 1년에 몇 개나 드시나요?

76개… 연간 소비율 전세계 1위

대한민국 사람들의 라면 사랑은 유별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연간 라면 섭취량이 라면 1봉지(120g) 기준으로 무려 평균 76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4.8일에 라면 1개씩을 먹는 꼴이다. 국내 라면 시장 규모만 지난해 1조9000억원 어치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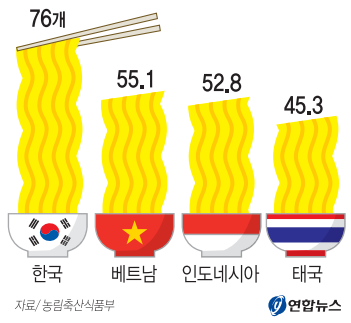
이는 2위인 베트남(55.1개)을 비롯해 인도네시아(52.8개), 태국(45.3개), 말레이시아(44.8개), 일본(43.3개) 등을 크게 웃도는 기록이다.

국수, 파스타, 냉면 등을 제외한 순수 라면만을 계산한 것으로 다른 면류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을 '면 공화국'으로 부를만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1일 펴낸 '2015 가공식품 세분화 현황 면류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면류 소비량은 연간 13.3㎏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라면'으로 불리는 유탕면류가 9153g으로 전체 소비량의 69%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는 국수 2760g, 냉면 961g, 기타면류 163.2g, 파스타류 158.8g, 당면 72.8g 순이었다.

다만 이들 면은 제조사에서 만드는 인스턴트 면을 통계로 한 것이어서 실제 개별 가게 등에서 라면이나 국수를 많이 만들어 파는 중국, 일본 등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만 해도 '라멘'으로 불리는 라면을 수 십년된 가게마다 다른 형태로 제조해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계 라면 소비량 순위〉



2014년 기준. 라면 1봉지를 평균 120g으로 환산 시 국민 1인당 연 소비 개수

국수 등 일반 면류는 기업간 거래로 불리는 'B2B' 시장에서 70% 가량이 팔리고 있다. 반면 라면의 90%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B2C'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다른 면류에 비해 가정에서 라면 소비가 활발하다는 의미다. 싱글족 등의 급격한 증가가 '라면 소비 1위국'을 만든 셈이다.

지난해 1조9000억원 가량의 국내 라면 시장은 대형할인점(25%), 독립슈퍼(20%), 편의점(19%), 일반식품점(18%) 등을 통해 골고루 팔려나갔다.

봉지라면과 '컵라면'으로 불리는 용기라면의 판매 비율은 각각 65%, 35% 수준이다.

한편 라면은 수출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라면 수출액은 3억2021만6000달러, 수입액은 1억3984만7000달러로 약 1억80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재영 객원기자 /kimjy@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한화S&C 주식 매각 책임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한화 S&C 주식 매각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유선준기자 rsunjun@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0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위안부문제' 한·일 시각차 여전히 컸다

양국 10차 국장급 협의

"접점 찾기 위해 노력,
조만간 다음일정 잡아"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0차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차기협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10차 국장급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정부 당국자는 협의 직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인식차를 재확인했음을 시사했다.

이시카네 국장은 "이 문제(군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발전에 장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왼쪽)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심도있고 유익한 협의를 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날짜는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측이 최근 우리 측에 해법 제시를 요구한 것에 대해 "10차까지 협의를 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면서 "공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의에서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 때 대화 내용을 밖에 알리지 않기로 하자고 한 그런 내용까지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자가당착이고 모순된 행태"라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을 왜곡해서 언론에 흘리는 고질적인 행태이고, 국제사회에 일본 외교 행태의 민 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측은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한국 절도단이 훔쳐온 불상 반환 등의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 기자 actor@

연구개발 돕고… 교육훈련·경영안정 지원하고…

30대그룹의 동반성장 문화… 中企의 '키다리 아저씨'로

관련프로그램만 1256개
협력사직원 역량강화 중점
삼성 '스마트공장' 등 눈길

SK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교육과정을 '서강-SK 브랜드 아카데미'를 2013년부터 중소협력업체에 전면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K그룹

30대 그룹이 동반성장 문화정착을 위해 교육훈련·경영안정·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1256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256개 프로그램은 분야별로 ▲교육훈련 지원 380개(30.3%) ▲경영안정 지원 237개(18.9%)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48개(13.8%) ▲네트워킹 지원 181개(14.4%) ▲판로지원 164개(13.1%) ▲시설지원 57개(4.5%) 순이었다.

특히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 인력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노하우 전수뿐만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협력센터 측은 분석했다.

대기업이 운영 중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협력사가 지속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안정과 자생력 확보를 도와주고, 대기업과 협력사의 경쟁력을 동반상승 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협력사의 현장혁신활동 개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제조현장, 스마트 제조기술 확보지원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1·2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미거래 일반 중소기업까지 최대 5000만원의 스마트공장 추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내 전문멘토를 협력업체에 직접 파견해 삼성전자의 운영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가 양질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자재가격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시세변동폭(5%)기준으로 원자재 가격을 수시로 조정해 협력사는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철판의 경우 포스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가 직접 철판을 구매해 협력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SK그룹은 동반성장 MBA, 동반성장 CEO세미나, 동반성장 e-런닝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 MBA는 협력사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동반성장 e-런닝 프로그램은 직접 참석이 어려운 협력사 임직원을 위해 경영, 어학 등 110개 강좌가 개설돼 있다. 동반성장 CEO세미나는 협력사 CEO를 대상으로 리더십, 재무 등 경영전반에 시야를 넓히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해 진행하고 있으며 누적 수강인원은 약 5000여명에 달한다.

한화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정책 관련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통공간(www.edreams21.co.kr)을 개설했다. 온라인 사이트에는 동반성장 건의함, 질의응답 게시판, 사이버신문고, 세무정보지 게시(분기별), 공사 수주정보 공지, 하도급계약 정보 등이 게재돼 있다.

CJ오쇼핑은 멕시코 신규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11개사로 구성된 '멕시코 홈쇼핑 시장개척단'을 멕시코에 파견했다. 홈쇼핑 시장 개척단은 현지가정 방문조사 및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제품 현지화와 시장 가능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개 참여 기업 중 8개사가 멕시코 홈쇼핑 론칭을 협상 중에 있다.

KT는 KT통신 인프라와 유사한 시험환경과 평가장비를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험설비 무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T는 일산 사옥에 무선 단말 테스트 시설을,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는 유선과 미디어 단말 테스트 환경을 각각 구축해 고객의 사용 환경과 동일한 네트워크 검증 환경을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KT는 2015년 3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해 사물인터넷(IoT)뿐만 아니라 게임SW, 모바일 관련 개발 테스트랩을 무상으로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다.

배명한 전경련중기협력센터장은 "대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협력사의 기업역량과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협력사가 대기업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경우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사면초가' 현대그룹, 어떤 묘안낼까

금융 3사 매각 무산에 이어
핵심 계열 현대상선 매각설

3천억원대 영구채 발행하자
"미봉책 그칠 것" 날선 지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그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진행해온 현대증권 등 금융 3사 매각이 지난달 무산된 데다 이달 들어서는 부실(不實)에 허덕이는 핵심 계열사 현대상선이 매각설에 휩싸이면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것.

현대그룹은 영구채 발행이라는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현대상선의 벌크전용선 부문을 분리한 자회사 현대벌크라인이 영구전환사채(하이브리드 CB)를 발행하는 방안이다. 발행 규모는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규모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영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영구채 조달 개념은 현대상선이 한국전력, 포스코 등과 10년, 20년씩 장기로 맺고 있는 벌크(유연탄, 철강 등) 운송물량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 물량 중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벌크 물량과 벌크선이 드나드는 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한 채권 발행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그룹 매출의 70% 가량을 점하는 현대상선이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2013년 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치열한 자구노력을 해왔다.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사업부문을 매각해 9700억원을 조달하고 물류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를 6억원에 매각했다. 컨테이너박스(1225억원), KB금융지주 지분(465억원), 신한금융지주 지분(960억원), 부산신항 장비(500억원)등 유무형 자산을 잇따라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자구실적은 3조3318억원으로 101%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현대상선의 위기는 쉽사리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일본계 금융자본 오릭스의 계약해제 통보로 현대증권 매각이 무산되면서 자구노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상반기에 돌아오는 회사채는 아직도 1조4000억원대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여전히 800%를 넘는다.

현대상선 임직원들은 불황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2009년부터 6년 간이나 참아왔는데 지금 해운업계 강제 구조조정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다. 지난달 말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4조2000억원의 자금 수혈안을 발표한 것과 달리 해운업계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쟁국인 중국, 일본의 경우 자국 해운사가 자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도록 정부가 해운사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줬다. COSCO, 차이나쉬핑 등 중국 해운사는 10조원 이상을 지원받았고 일본은 해운사들이 1%의 이자율로 회사채를 발행해 대형 선박을 발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적 해운선사들은 부채비율 상한에 갇혀 100척이 넘는 선박을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 2005~2008년 높은 가격으로 선박을 용선해야 했다.

/정은미 기자

'소상공인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0만명 돌파

누적부금액 4조원 돌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폐업·노후에 대비한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출범 8년 만에 누적 가입자 60만명을 달성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60만 부금 4조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자산이 되겠습니다'란 기념행사를 통해 이같이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증대에 공헌한 금융기관 직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능 기부 우수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삶과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주제로 향후 노란우산공제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제가 되고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의 희망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actor@

삼성전자 모델들이 11일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한 삼성 갤럭시존에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가상 채널 서비스 TV PLUS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TV PLUS'가 통했다

재방문율 80% 넘어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선보인 가상 채널 서비스 'TV 플러스'가 큰 인기를 끌며 국내 스마트TV 서비스의 새로운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

TV 플러스는 스마트TV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문형 비디오(VOD)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 주문형 비디오를 TV 채널처럼 돌려볼 수 있게 만든 가상 채널 서비스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IT 강국이지만 스마트TV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한국 시장을 위해 삼성전자는 지난 10월부터 2015년 삼성 스마트TV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TV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고객 5명 중 1명이 TV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 재방문율은 80%를 넘어섰다.

TV 플러스는 별도의 가입절차나 앱 설치 없이 2015년형 스마트TV를 인터넷에 연결하기만 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500~600번대 33개의 가상 채널에서 씨제이이앤엠(CJ E&M)과 EBS의 인기 드라마와 각종 프로그램들이 24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TV 플러스는 고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관련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VOD의 장점도 그대로 담았다. 드라마 채널에서는 인기 드라마의 1·2회와 관련 영상을, 'EBS 수능 특강' 채널에서는 국·영·수 특강 전부와 관련 영상을 무료로 제공해 고객들이 언제든지 선택해서 바로 볼 수 있다.

지난 한 달간 가장 인기 있었던 채널은 '응답하라 1994'였으며 방송중인 TV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만을 모은 'CJ E&M TV 하이라이트' 채널과 걸그룹 영상만을 모은 'HOT 걸그룹 특집' 채널도 상위 10위 안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매달 인기 있는 콘텐츠를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는 12월에는 단기 학습이 가능한 'EBS 중국어'와 'EBS 제 2외국어' 채널을 신설할 예정이며 '채널 소시'와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등의 인기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이원진 부사장은 "TV 플러스는 TV 채널을 돌리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기술엔 적수 없다” 친환경·저비용제품 개발 총력전

전환기의 한국기업, 체질개선 어떻게?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끈 조선산업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4분기에 3조318억원의 적자를 내며 ‘어닝쇼크’를 일으킨 데 이어 3·4분기에도 해양플랜트 악재와 경영 부실 건 등이 겹치면서 1조2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중단이 우려될 위기까지 맞았다. 대우조선의 위기는 정부와 채권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회생의 기회가 마련됐지만 국내 대표 조선 업체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❷ 바닥찍은 조선업계 성장동력 확보하라

◆조선업 침체 산넘어 산…이란 원유 증산으로 저유가 지속 전망

한국수출입은행은 11일 ‘2015년 3·4분기 조선해운시황 및 전망’ 자료를 통해 국내 조선업의 3·4분기 누적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한 약 190억5000만 달러(약 22조408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선업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저유가로 인한 석유개발 회사들의 해양플랜트 발주가 급감했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성장률 둔화로 원자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해운 시황이 나빠지자 선박 발주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들의 지연과 계약취소 통보에 지난 2·4분기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조선3사는 3·4분기에도 2조원이 넘는 적자를 이어갔다.

여기에 내년 1·4분기 이란의 원유 증산 시작으로 또다시 유가 추가 하락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해양플랜트 수주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대重 ‘낮은 갱도용 휠로더’ 등 여러 신기술 쏟아내며 시선몰이
삼성重 ‘연료절감’ 친환경에 집중

그러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신기술을 선보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조선은 물론 기계, 플랜트 등 각 분야에서 자체 기술력을 강화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업계, “신기술로 불황 타개하라”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국내 최초로 340마력급 지하 광산용 휠로더(모델명 HL780-9S UM·짐 싣는 기계)를 개발해 11월부터 세계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이 휠로더는 낮은 갱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차체 높이를 기존 모델보다 70㎝가량 낮추는 등 광산 작업에 최적화된 설계와 안전성, 내구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대우조선해양이 10월부터 실시한 쇄빙 LNG선 충격시험(Impact Test) 모습.

〈국내 조선산업 추이·전망〉 (단위:백만CGT, 억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3Q	2015(E)
한국 조선 산업	수주량(백만CGT)	8.4	18.7	12.6	8.8	10.9
	수주액(억달러)	306.6	464.5	327.1	190.6	240
	건조량(백만CGT)	13.6	12.4	12.1	10.0	12.8
	수주잔량(백만CGT)	31.0	35.3	34.2	32.1	31.4
	수출액(억달러)	397.5	371.7	398.9	301.9	411

주:(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Clarkson,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중공업은 올 6월 움직이는 선실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7월에는 가스터빈 엔진 차세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8월에는 선박 운항과 항만 물류 정보 등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스마트십’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신기술을 쏟아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최적 선형 설계, LNG 추진선, 에너지 절감장치(ESD) 등 세계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세이버 핀’은 선박 외판에 장착하는 구조물로 선체 주변 물의 흐름을 제어해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연료절감 장치다. 이 장치를 장착한 선박은 최대 5%가량 연비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선체 진동도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이 1년간 사용하는 유류비는 선박 가격의 20~30%에 달한다. 예를 들어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연간 사용 유류비용 400억원 중 5%를 절감한다고 하면, 선박 1척당 2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0월 말부터 4일까지 경남 거제도 옥포조선소 내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특허 보유한 LNG 재액화 장치인 PRS의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기술로 시장의 신뢰를 다져가겠다는 의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의 불황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유가가 반등해 발주처들의 경기가 살아날 때를 기다리며 규모를 줄이고 수익성을 중심에 둔 수주와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글싣는 순서
① 수출부진에 내수침체까지…위기의 한국경제
② 바닥찍은 조선업계 성장동력 확보하라
③ 흔들리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기회로
④ 성장한계 부딪힌 통신업계 생존 돌파구는

현대자동차가 1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축구협회 및 축구 국가 대표팀 후원 조인식’을 진행한 가운데 국가대표팀 주장 기성용 선수,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올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조원홍 현대자동차 마케팅사업부장, 국가대표 이재성 선수(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2019년까지 ‘축구대표팀 후원’ 연장

축구협회 지원도 함께 늘려

현대자동차가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 대표팀을 2019년까지 공식 후원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에서 조원홍 현대자동차 마케팅사업부장,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올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기성용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국가대표 이재성(전북현대 소속) 선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및 축구 국가 대표팀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 1999년부터 후원을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이번 후원 조인식을 통해 2019년 까지 자동차 부문 공식 후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인식에서 대한축구협회는 현대자동차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년간의 지속적 후원을 기념해 현대자동차를 ‘명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 위촉하는 자리를 가져 의미를 더했다.

그 동안 현대자동차는 월드컵 팬파크 운영, 월드컵 슬로건 공모 등 ‘축구 팬’을 위한 축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축구 국가대표팀 후원 연장을 통해 축구 팬들을 위한 새로운 경험 요소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 및 축구 국가 대표팀 공식 후원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축구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후원사로서 최선을 다해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국내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경험을 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프로축구 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에 적극적인 투자와 전폭적 지원을 펼쳐 왔으며, 이는 올해 K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축구 후원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발전은 물론 국내 축구팬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BMW, 판매·A/S망 확 키운다

대구 상동에 A/S 센터 열고
분당엔 MINI 전시장도 개장

BMW그룹코리아가 BMW와 MINI(미니)의 판매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BMW그룹코리아는 공식 딜러인 코오롱모터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에 수성 패스트레인 서비스센터를, 도이치모터스가 MINI 분당 전시장을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수성 패스트레인 서비스센터는 필터나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교체 등 작업시간 2시간 미만의 간단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정비 받을 수 있는 BMW와 MINI의 공식 경정비 센터다.

워크베이 11개를 보유해 하루 60대의 정비가 가능하고 입고 시 어드바이저가 고객과 함께 차량을 직접 살펴보는 랙 공간을 갖추고 있어, 차를 직접 보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면적 973.3㎡에 지상 2층 규모로 애프터서비스(AS) 고객 접수실 및 대기실을 마련한 본관과 정비 전용 공간으로 조성한 별관으로 각각 구성했다.

MINI 분당 전시장 내부 모습.

분당 MINI 전시장은 확장 이전했다. 연면적 492.48㎡에 지상 2층 규모로 5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고 43대를 주차할 수 있다. 1층은 신차 전시장, 2층은 고객라운지로 구성했고 MINI 출고 고객을 위한 전용 핸드오버존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소리 찾는 수술’에 22억 지원

〈인공와우〉

1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주관하는 ‘삼성 인공와우 지원사업’의 3단계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삼성전자 백민승 사원대표, 안재근 부사장,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 조양선 인공와우센터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서울병원에 지원 기금 전달

삼성전자는 11일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인공와우 수술 환아 가족들을 격려하고 인공와우 수술과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삼성 인공와우 지원사업 3단계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삼성서울병원의 권오정 원장, 홍진표 사회공헌실장, 조양선 인공와우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삼성전자는 안재근 부사장, 정기수 상무, 백민승 사원대표(수원) 등이 함께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사랑의 후원금’ 11억4000만원에 회사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 총 22억8000만원을 삼성서울병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세상의 소리로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청각장애 환아 30명을 대상으로 인공와우 수술과 재활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인공와우 수술은 와우(달팽이관)질환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 환자에게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인공와우를 이식, 소리를 듣게 해주는 수술이다. 수술을 받은 후 4년 정도 언어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와 삼성서울병원은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 환아들에게 보청기를 제공하고 4년간 언어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안재근 부사장은 “지원사업 3단계(2015 ~ 2018년)는 인공와우 수술과 재활치료 대상을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기존 한쪽 수술비 지원에서 양쪽 수술비 지원으로 지원내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부문 12년 연속1위
NbCI 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자산관리부터 은퇴 후 인생까지
"KB국민은행의 은퇴·노후설계 서비스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세요"

국민의 은퇴·노후준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KB골든라이프 가족사랑 수기공모 이벤트』안내

- **공모기간** : 2015.10.30~11.30 - **공모방법** : 인터넷뱅킹(www.kbstar.com) 로그인 〉 이벤트존 〉 KB골든라이프 가족사랑 수기공모 이벤트 '응모하기'
- **공모주제** : 은퇴를 준비하는/경험한 당사자가 멋진 은퇴생활을 다짐하거나 배우자, 자녀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응모란에 작성
- **시상내용** : **행복여행상**(여행전용 선불카드지급) **1등**(1명) 8백만원 **2등**(2명) 각 5백만원 **3등**(3명) 각 3백만원 **맛집투어상**(5명) 각 20만원(기프트카드) **감사상**(20명) 각 영화관람권 4장
- **당첨확인** : 2015.12.11 (인터넷뱅킹 이벤트존 행운의 당첨자란)

※ 제세공과금은 KB국민은행에서 부담합니다. ※ 수상작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KB국민은행에 귀속되며 별도 반환되지 않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노후설계 상담창구
전국 850여개 영업점 VIP라운지에서 제안하는 체계적 노후준비

은퇴·노후설계 시스템
재무계획부터 비재무 이슈까지 진단받는 나만의 노후준비

은퇴·노후 전용상품
연금우대통장부터 각종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는 연령대별 노후준비

행복노후설계프로그램
KB골든라이프 전문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준비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 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760호(2015.11.03)

KB 국민은행

데이터요금 1000만 시대… 통신료 줄고 품질 좋아져

음성 통화 전면 무료화 등 데이터 중심 재편 가속화

사용량 23% ↑ 요금 5.6% ↓ 이통사, 혁신서비스 쏟아내

서울 서대문구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수가 첫 출시 5개월만에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신 소비도 데이터 중심으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음성 대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됐다. 데이터 중심 통신 서비스는 소비자의 데이터 부담은 낮추고, 콘텐츠와 사물인터넷(IoT) 등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지난달 1000만명을 넘어서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중심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

◆통신 과소비↓ 사용량↑…선순환 시작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통신 유통구조를 안정화하고 요금 위주로 서비스를 변화하려는 고민 속에 만들어졌다. 이통사는 주 수익원이던 음성통화를 전면 무료화했다. 또 음성·문자·데이터를 복잡하게 조합해 제공하던 기존 요금체계를 뒤엎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500MB, 1GB, 2GB, 3GB 등의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데이터는 이제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조사(8월)에 따르면 요금제 선택 기준으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1순위로 꼽혔으며 기본료와 기본통화제공량, 단말기할인정도, 의무약정 등의 순위였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이용자의 데이터 소비는 늘리면서도 요금 부담은 줄이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데이터요금제 도입 전후인 4월과 7월 이통 가입자들의 소비 패턴을 비교해 보니, 음성 사용량은 평균 18%인 75분이 늘었고 데이터사용량은 23%인 0.9GB가 증가했다. 반면 사용자 당 평균 통신요금은 월 평균 2600원, 5.6% 가량 감소했다. 이는 자신에 필요한 음성 또는 데이터 사용량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요금제를 쓰던 이용자들이 요금제를 낮췄기 때문이다. 통신 과소비를 줄였지만 오히려 사용량은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 중심 이용자 편의 서비스 나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데이터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금융,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교육, 오락 등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며 요금 이상의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는 단말기값을 제외하고 월 평균 4만1011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로 누리는 각종 편익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11만1758원의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이통사로서는 직접 수익원이 된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는 일이 과제가 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천편일률적 요금제에서 벗어나 혁신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다. SK텔레콤은 데이터를 가입자들 끼리 주고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선물하기'와 미리 데이터를 구매해 필요할 때 충전해 쓰는 '데이터 선불 요금제'를 선보였다. KT는 필요한 데이터를 1달 기준으로 이월해 쓸 수 있는 '데이터 밀당' 서비스가 있고 LG유플러스는 영상 특화 데이터로 차별화에 나섰다. KTOA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혁신 서비스도 늘어나고, 이용자의 통신요금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단순 요금체계 변화를 넘어 ICT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CES 2016 혁신상을 수상한 삼성전자(사진 위 왼쪽부터) 갤럭시 S6 엣지+, 무선 360 오디오, 슬립센스, 기어 S2와 LG전자(아래)LG V10. /각사

삼성·LG전자 'CES 혁신상' 싹쓸이

삼성, 갤럭시S6 엣지+ 등 38개 LG, 울트라 올레드TV 등 21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소비가전 전시회 'CES 2016'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CES 혁신상'을 휩쓸었다.

10일(현지시간) CTA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V(9개), 모바일(12개), 가전(7개), 반도체(5개) 등에서 총 38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히 갤럭시S6 엣지+, 최신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기어 S2 등이 가장 주목받는 제품들에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성전자는 TV 부문에서 5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모바일 부문에서도 S6·S6 엣지·S6 엣지+·노트5 등 올해 출시된 모든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18.4인치 대화면 태블릿 갤럭시 뷰,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VR, 어린이용 콘텐츠 서비스인 삼성 키즈,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외장 배터리팩, 무선 충전 패드 등 다양한 제품으로 12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역대 최다인 5개 제품이 혁신상을 받았다. 세계 최대 용량의 차세대 12기가비트(Gb) 초고속 모바일 D램(LPDDR4), 128기가바이트 UFS 메모리 스토리지, 스마트폰과 PC에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2테라바이트(TB)의 휴대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T3 등이 상을 받았다.

LG전자는 생활가전과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 10개 부문에서 총 21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 LG전자가 CES 혁신상을 수상한 이래 최다 기록을 세웠다.

77형 울트라 올레드 TV가 '비디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압도적인 화질과 디자인을 인정받아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올레드 TV로 상을 수상한 데다, 4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데 대해 의미가 크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에서는 4개 제품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비주얼 경험을 강화한 전략 스마트폰 LG V10, 안드로이드웨어 스마트워치 가운데 세계최초로 LTE 통신이 가능한 LG 워치어베인 2nd 에디션, 글로벌시장에서 1000만대 넘게 판매한 LG 블루투스 헤드셋의 스포츠타입 LG 톤액티브, 휴대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4단 접이식 롤리 키보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 2016'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대형 부스를 마련하고, 혁신상 수상제품들을 비롯해 세계 소비가전 업계를 선도하는 기기와 기술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카카오톡 신화

이석우, 결국 회사 떠난다

사의 표명… 14일 공식 퇴사

카카오톡 성공을 이끈 카카오의 원년 멤버 이석우 전 대표(**사진**)가 결국 회사를 떠난다.

카카오는 11일 이석우 전 대표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 임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공식 퇴사 일자는 이달 14일로 예정됐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부사장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합병법인 다음카카오 대표를 맡아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함께 메신저 카카오톡의 신화를 이끈 인물이다.

그는 카카오가 올 9월 신임대표 선임과 함께 구성한 최고경영진 협의체인 'CXO팀'에서 빠지고 외부 기구인 경영자문협의체에서 자문역을 맡으면서 사퇴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실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안식 휴가를 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그는 이번에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쉬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서 신임대표 선임 당시에는 회사에 남아 대표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지낸 최세훈 전 대표는 현재 CXO팀 일원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전 대표가 그동안 회사와 관련한 대형 이슈에 대응하면서 피로감을 느낀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신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재임 기간에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유난히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에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용자 반발을 샀고, 이 때문에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로는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또 카카오 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다가 최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개방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음란물이 무방비로 유통되는데도 카카오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이나 그동안 숱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종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정문경 기자

LG전자
'G4 화이트 골드 에디션' 출시

LG전자가 11일 스마트폰 'G4 화이트 골드 에디션'을 LG유플러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다.

G4 화이트 골드 에디션은 전·후면에 부드럽고 깨끗한 화이트 색상이 적용됐으며 측면 테두리 부분에 따듯하고 고급스러운 골드색상을 더해졌다.

LG전자는 G4 화이트 골드 에디션으로 여성과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 G4의 인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말 출시된 G4는 조리개값 F1.8 렌즈와 카메라 전문가 모드 등 뛰어난 카메라 성능으로 소비자에게 주목 받았다.

특히 브라운, 블랙, 핑크, 오렌지, 스카이블루 등 다양한 색상의 후면 가죽 커버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패션 아이템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탈착식 대용량 배터리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등 소비자 중심의 사용편의성도 G4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정은미 기자

'75주년' 재규어 랜드로버 특수 車 영화 '007 스펙터' 통해 최초 공개

'영화 007 스펙터 스페셜 차량은?'

재규어 C-X75, 랜드로버 디펜더,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등 재규어 랜드로버가 특수 제작한 스페셜 차량들이 11일 국내 개봉한 24번째 007 시리즈 '007 스펙터'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007 스펙터는 자신의 과거와 연관된 암호를 추적하던 제임스 본드(다니엘 크레이드)가 사상 최악의 조직 스펙터와 자신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액션 영화다.

샘 멘데스 감독은 007 시리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한 카 체이싱을 준비하며 "이번 작품에서 액션 연출의 한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해 기대감을 모았다.

영화 속에서 가장 스팩터클한 액션을 선보인 제임스 본드와 새로운 악당인 미스터 힝크스(데이브 바티스타)의 고속 추격 장면은 시속 160㎞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스피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3주 동안 로마 시내 전체를 통제해 촬영됐다.

007 스펙터 재규어 C-X75 촬영 장면.

악당 힝크스가 운전하는 재규어 C-X75는 재규어 창립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모델로 이번 영화를 위해 특별 제작됐다. C-X75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카본 컴포지트 새시, 미래형 디자인을 갖춘 재규어 역사상 가장 진보된 슈퍼카로 약 161㎞까지 도달하는 데 채 6초도 걸리지 않는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자랑한다. 스크린 속에서는 단 한대의 C-X75가 로마의 밤거리를 질주하지만, 완벽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실제 차량은 총 7대가 동원됐다.

/양성운 기자 ysw@

내년 2월 '2차 대이동'… '계좌 노마드' 잡아라

〈유목민〉

금융, 격변의 시대 ② 은행지점서도 계좌이동 가능해져

고객 한번 뺏기면 수익 "직격타"
내년 2월 범위 확대…전쟁 불가피
은행 주거래 고객우대서비스 경쟁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객 이탈현상'을 확인한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각사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행 초기 뜨거운 열기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내년 본격적인 2라운드가 예고돼 각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으며 고객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2영업일 간 계좌이동 사이트인 '페이인포' 접속 건수는 21만3000여건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자동이체 변경은 3만4500여 건, 자동이체 해지 건수는 7만여 건이다.

금융당국은 고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페이인포' 접속 건수를 계좌이동제 서비스 시행 첫날과 이튿날에 한해서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접속 건수와 계좌 변경, 이동 횟수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희비 갈린 시중은행…내년 2월 재격돌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현재는 하루 계좌 이동 건수가 6000여 건으로 줄어드는 등 은행권은 대체로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고객 이동을 실제로 확인한 은행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계좌이동제 시행 이후 시중은행들의 희비가 갈렸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 500여명에 이어 이달 2일 800여명 등 총 1300여명의 고객이 새로 가입하며 비교적 선방했다.

우리은행도 이 기간 800여명의 고객이 순유입했다. 이틀간 3000여명이 주거래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겼지만 800여명이 새로 가입했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은 500여명의 신규 거래 고객을 확보했다. 기업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 후 1700여명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탔지만 1900여명이 기업은행으로 계좌를 옮겨 200여 명이 순증했다.

반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자세한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탈 고객이 유입 고객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좌이동제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만 이뤄지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기존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자동송금 포함) 항목을 온·오프라인에서 끌어올 수 있어 본격적인 '고객 대이동'이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 주거래 우대 상품 선봬

시중은행들은 계좌이동제에 대비, 고객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추가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우선 KEB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혜택으로 주거래 고객 확보에 나섰다.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과 기업 주거래 요건 충족 시 최대 연 0.6%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주거래우대 중소기업대출' 특판 상품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은 우대조건을 낮춰 누구나 주거래고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KB국민ONE통장' 상품을 판매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 통장은 공과금 이체, KB카드 결제실적이 1건만 있어도 전자금융, 현금자동화기기(ATM) 시간외출금 등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신상품 출시보다 기존 상품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을 택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7월 '신한 주거래 우대 패키지'는 기존 직장인 우대통장과 통합된 '주거래 우대통장'과 '주거래 미래설계통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상품들은 신한카드 1원이상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가 1건만 있으면 전자금융, ATM 인출, 타행 자동이체 등의 수수료가 무제한으로 면제된다.

지난 3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계좌이동제 대비 특화상품을 출시한 우리은행은 '우리웰리치 주거래패키지', '우리웰리치주거래예금', '우리 웰리치 주거래 통신 관리비통장대출' 등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IBK평생한가족통장' 역시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각종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 등이 제공된다. SC은행도 신규 자동이체 고객에게 갤럭시 기어 S2, CGV 모바일 영화예매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이달 30일까지 벌이고, NH농협은행은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통해 고객 공략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면제와 소폭의 금리 혜택 등 비슷한 혜택으로는 고객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고객 뺏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계좌이동제로 증가한 마케팅 비용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너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기보다는 일부 고객을 선별한 '셀렉티브 마케팅'을 통해 투입 비용대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과 함영주하나은행장(왼쪽 다섯 번째)이 11일 오전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5 모두 하나데이' 캠페인에서 다문화 이주여성, 봉사단원들과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하고 있다. /하나금융

"소외 계층에 사랑의 김장 나눠요"

하나금융그룹 '모두 하나데이'
내년 1월 11일까지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은 숫자 '1'이 네 개나 겹치는 날인 11월 11일을 '모두 하나데이'로 정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두 달간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임직원, 봉사단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의 축하공연, 학용품을 담은 '글로벌 행복상자' 쌓기, 소외 계층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인사말에서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통해 글로벌 일류 금융그룹으로서 더 커진 하나인의 역량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아동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는 '글로벌 행복상자' 전달, 재활원 봉사활동, 기부금 전달 등 다채로운 봉사·나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다. /김문호 기자 kmh@

가계대출 사상 최대폭 증가… 10월 9조 ↑

주담대 465조, 한달새 7조 늘어
기업대출 729조… 높은 증가세

가계부채가 한달새 9조원이나 늘었다. 월간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시장 호조로 집을 사거나 분양아파트 계약 등을 위해 은행 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624조8000억원으로 한달새 9조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이 늘었다. 지난 4월(8조5000억원 증가) 이후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65조1000억원(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달새 7조원이나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월간 증가 규모는 올해 4월(8조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크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이사철의 주택거래 수요, 아파트 분양 호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9월 9100가구에서 10월 1만1700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 2006~2014년 10월 중 평균 거래량(7500가구)보다 56%나 많은 수치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나머지 은행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추석 연휴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14일) 기간 중 신용카드 결제자금 수요가 늘면서 한 달 새 2조원 불어나 159조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기업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 말 잔액은 72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지난해 4월(9조6000억원)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 대출은 일부 기업의 인수합병(M&A) 수요,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증가액이 9월 2000억원에서 10월 3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도 9월 5조5000억원에서 10월 6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중소·중견기업 CEO들에 경영전략 지원

KB국민은행
'KB 창조리더스포럼'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KB 창조 리더스포럼, 2015'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가치를 여는 혜안의 리더십'을 주제로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CEO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최우수 중소·중견기업의 CEO 및 배우자, 업무협약 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커다란 결실을 맺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앞으로도 KB는 함께 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윤종규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중소기업금융분야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그룹'을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보배 기자

윤종규 KB국민은행 은행장이 지난 10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KB 창조 리더스포럼, 2015'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M&A로 10년만의 '메가딜'… 김남구의 역전 행보

다윗과 골리앗은 애초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전쟁에 도가 튼 장군이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원동력은 강한 신념과 원샷원킬을 자랑하는 돌팔매질이었다. 다윗은 약한 이가 강한 이를 쓰러뜨리는 '기적의 대명사'가 됐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호의 성장사도 '다윗'의 역사였다. 지난 2004년 김 부회장은 동원증권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며 가장 먼저 "한국투자증권(옛 한국투자신탁)이나 대한투자증권 중 한 곳을 인수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최고경영자(CEO)의 호기 정도로 여겼다. 그는 보란 듯이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투자증권의 자산만 26조원이 넘는다. 계열사도 23곳에 달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김 부회장이 2005년 추억을 현실로 보여줄 지 관심이다.

증권업, M&A에 길을 묻다 ⑧ 대우증권 노리는 한투

◆ 김남구 부회장의 뚝심 통할까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사진).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상남자'라고 말한다. 'Why not?'(왜 안 되죠?)을 입에 달고 살며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김 부회장은 식품제조업계의 장자에서 자본시장의 큰 형님이 됐다.

대학을 갓 졸업한 김 부회장이 선택한 첫 행보는 놀랍게도 참치잡이배였다. 동원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김 부회장은 원양어선에 올라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그물을 던져 참치를 잡고 갑판 청소를 하는 등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을 했다. "경영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몸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아버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뜻과 자신의 결단이 빚어낸 선택이었다. 동원산업에도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다. 금융권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1년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경영관리 전공)을 졸업한 뒤 동원증권으로 옮기면서다.

여의도 본사가 아닌 명동의 코스모지점이었고 직급도 대리였다. 이후 채권영업, 기획실 등을 거친 김 부회장은 2004년 동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이듬해 6월 자사보다 덩치가 큰 한국투자신탁을 인수했다. 기존 다윗(동원금융지주)이 골리앗(한국투자금융지주)을 삼켰다며 업계를 놀라게 했다.

대우증권 자본, 효율적 활용 가능
해외 영업망으로 글로벌 확장도

같은 해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2011년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에 오르며 독자적인 경영권 승계를 굳혔다.

김 부회장은 2004년 당시 5조원에 불과한 소규모 동원증권(현 한국증권) 자산을 26조원4000억원까지 끌어올리며 업계 정상에 올려놨다. '곰'이란 별명처럼 그의 뚝심이 만들어낸 것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한국투자증권을 훼방꾼쯤으로 여기는 시각이 적잖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인수에 적잖은 부담도 있지만 대우증권 인수는 '비전 2020'(2020년 시가총액 20조원, 자기자본 수익률 20%)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김남구 부회장이 오랜 장고 끝에 막판 인수전에 참여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신증권, 한국투자신탁 등 다양한 M&A의 경험은 최대 강점이다.

◆ 국내 1위 증권사로 발 돋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우증권을 탐내는 이유는 뭘까. 대우증권 인수에 성공하면 자기자본 7조5000억여원의 대형 증권사로 발돋움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증권사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금 동원력에 의문을 던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인수가격이 최대 3조원까지 늘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국투자증권 현금성 자산 회수와 은행 차입금 등을 통해 대우증권 인수자금 중 1조5000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계열사 투자자산과 대여금 등을 회수하고 한국투자증권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합병 시너지 측면에서 경쟁사와 비할 바가 아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수익 구조는 브로커리지(위탁매매) 40%, 자산관리 30%, 투자은행(IB) 30% 수준으로 다변화돼 있다. 이 때문에 대우증권의 자기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장 안팎의 평가다.

대우증권의 해외 영업망을 통해 글로벌 영토 확장도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직접투자와 금융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카카오컨소시엄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인수전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끝〉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中 '광군제'로 유아용품·화장품株 급등

〈솔로데이〉

연중 최대 쇼핑대목에 주가 '들썩'

중국의 최대 쇼핑 이벤트인 '광군제'(光棍節)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유아용품과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했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도 불리는 광군제 행사가 이날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용품주는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줬다.

11일 주식시장에서 아가방컴퍼니는 전날보다 3.17% 상승한 1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에서 유아복을 유통 중인 제로투세븐도 1.36% 상승한 1만1200원을 기록했고, 제로투세븐의 모회사인 매일유업 역시 3.41% 올랐다.

보령메디앙스도 4일간의 하락세를 마치고 4.17% 급등했다.

유아용품주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 소비 수혜주로 꼽히는 화장품주도 상승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0.40% 오른 37만4500원에 거래됐다.

코스맥스는 1.15% 뛰었고, 한국화장품제조(2.62%)와 에이블씨엔씨(3.16%), 코리아나(2.15%), 토니모리(3.12%), 코스온(6.84%) 등도 상승했다.

광군제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날은 아니지만 11월 11일의 '1'이 외롭게 서 있는 독신자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독신자의 날로 불리면서 1990년대부터 확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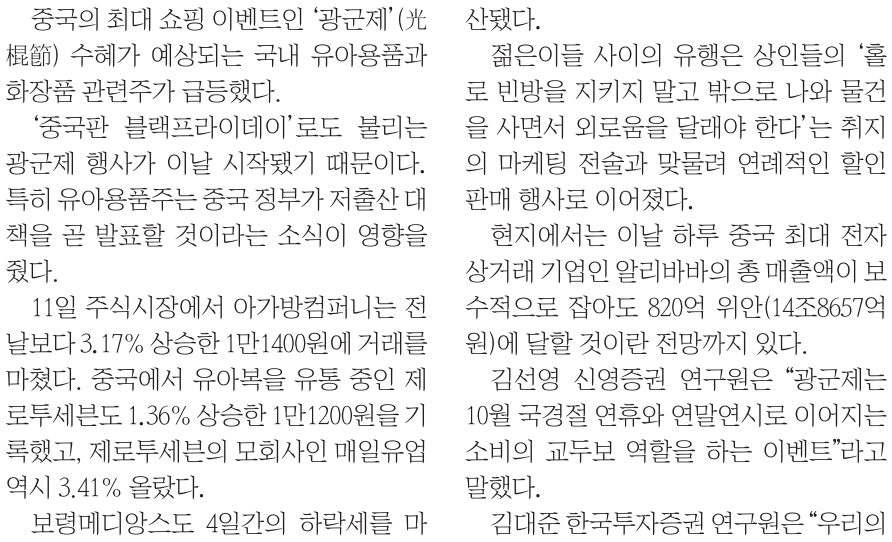
젊은이들 사이의 유행은 상인들의 '홀로 빈방을 지키지 말고 밖으로 나와 물건을 사면서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는 취지의 마케팅 전술과 맞물려 연례적인 할인 판매 행사로 이어졌다.

현지에서는 이날 하루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총 매출액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820억 위안(14조8657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있다.

김선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광군제는 10월 국경절 연휴와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소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이벤트"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의 관심 대상은 중국인의 쇼핑 리스트"라며 "중국 내 쇼핑몰이나 한국의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통계로 살펴본 결과 화장품, 의류·악세서리, 유아용품 소비가 빠르게 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KB투자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지난해 판매 상위 제품은 스마트폰과 같은 IT 제품, 외국산 분유 등이며 한국 제품의 경우 판매상품 상위 3개가 모두 미용제품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광군제'로 지난해 하루 매출 기록 갱신한 알리바바 중국 연중 최대 대목인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광군절 솔로데이)가 11일 시작된지 11시간 49분만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지난해 하루 매출 기록을 깼다. 11일 중국 환추왕(環球網)은 광군제 행사가 시작된 지 11시49분만에 알리바바는 571억 위안의 매출을 올려 작년 광군제 하루 매출액과 같은 판매실적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콘서트 행사에서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오른쪽)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금호에이치티,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 개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금호에이치티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조석래 (주)금호에이치티 대표, 박명구 금호전기(주) 회장, 요이치 이비 Toshiba L&T 대표, 민경남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이사장(왼쪽부터) 등이 상장기념패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에이치티

예탁원, '의결권 선진화' 중심으로

'섀도우 보팅' 폐지 유도 호응↑
의결권 확대 전자시스템 구축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 선진화의 첨병으로 떠올랐다.

선진화된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조건부 유예기간을 둔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 행사제도)'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452개사가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제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업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의결권시장 선진화 노력은 오는 2016년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의결권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부터 전자투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전자위임장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의 도입은 주주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주총 관련 비용도 감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주총 참석에 어려움을 겪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약 20억원을 들여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동안 기업들의 참여와 계약 독려를 위해 사실상 무료로 운영해 왔다.

유 사장은 "현재는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또 장기적으로 터키의 사례와 같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결권 자문 서비스 회사의 협력도 적극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은 주주총회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의결권 선진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자투표 계약사는 지난해 말 79개사에서 올해 9월 기준 452개사로 급증했다. 반면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76%에 불과하다. 전자위임장 행사율도 0.14% 수준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도 숙제로 남았다.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 행사제도 발전을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일부 주식에 한해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다.

그러나 김 교수는 피라미드 형태나 순환출자 구조 등 우리나라 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을지로 조명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빛으로 통하다

Euljiro, Light Way 2015

11.13
11.21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한국예술종합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2015
11.13—11.21
17:00
22:00

2015
11.13—11.21
17:00
22:00

라이트스타일 Light Style
라인 Lighn
루스케이프 LUGH SCAPE
린노 LINNO
마성빈 Sungbin Ma
에르코 ERCO
이온에스엘디 EONSLD
정강화 Chung Kangwha
주하영 Ha Young, Ju
필립스 PHILIPS

을지로 3가역 — 을지로 4가역
세운 청계 • 대림상가 일원

을지로 3가역 — 을지로 4가역
세운 청계 • 대림상가 일원

주최/주관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중구

후원
서울특별시
(사)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을지로 조명상가와 조명기업, 대학, 영디자이너가 함께하는 조명작품 전시

조명상품 그랜드세일최대 30%과 프리마켓, 체험 워크숍

학술세미나
2015.11.18(수) 13:00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5

을지로:라이트웨이 2015
서울디자인재단 Seoul Design Foundation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KOREA ASSOCIATION OF LIGHTING DESIGNERS

11일 오후 금천패션아울렛단지 연합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금천 롯데팩토리아울렛 오픈 규탄 집회'를 가졌다. /김성현 기자

롯데쇼핑의 금천구 쇼핑몰 인수… 지역패션단지 '민감 반응'

"골목상권 침해" vs "오픈계획 없다"

〈지역패션단지 연합회〉 〈롯데쇼핑〉

연합회, 오픈 철회 요구 집회
롯데 "인수안 검토만 했을뿐"

금천패션아울렛단지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롯데를 '골목상권 침해 주범'으로 지목했다.

롯데쇼핑측은 연합회가 주장하는 아울렛 오픈 계획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회와 롯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금천구 롯데팩토리 아울렛을 둔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천패션아울렛단지 연합회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 규탄 2차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앞서 지난 4일에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1차 규탄집회를 갖고 롯데의 금천 롯데팩토리아울렛 오픈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서범석 연합회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말하는 상생이 이런 것인가. 금천패션아울렛단지는 정부나 (대)기업의 도움 없이 영세상인들의 힘으로 성장한 곳"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대기업이 자금을 앞세우는 것이 롯데의 상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롯데쇼핑이 최근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패션아일랜드 인수, 내달 중으로 롯데팩토리아울렛을 비밀리에 오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김포공항에 롯데몰이 오픈한 후 인근 상권의 매출이 평균 50%가량 하락했다며 롯데팩토리아울렛이 금천구에 들어서면 인근 영세상인은 전부 파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롯데쇼핑측은 내달 오픈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금천구에 복합쇼핑몰을 설립하는 것조차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롯데쇼핑은 기존 패션아일랜드의 소유주가 지속적인 매출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매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안을 검토했지만 인수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연합회의 규탄 대상이 잘못됐다. 우리는 골목상권 침해를 할 생각도 없으며 매매로 나온 물건의 인수를 검토만 해봤을 뿐"이라며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면 인수안부터 재검토해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회신을 요구한 상태며 롯데의 롯데팩토리아울렛 오픈 철회 의사가 있을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맥도날드 "버거 직접 만들어보세요"

시그니처 버거 서비스
강남 6개 매장 추가해

맥도날드가 나만의 버거를 만들 수 있는 매장을 확대한다.

맥도날드는 11일 '시그니처 버거'플랫폼 서비스를 강남 지역 6개 매장에 추가 도입하고 강남구 청담DT점에서 가수 로이킴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벌였다.

지난 8월 서울 신촌점에서 처음 선보인 시그니처 버거는 고객이 직접 고른 식재료를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면 직접 조리해 테이블로 서빙해주는 신개념 서비스 플랫폼이다. 식재료는 총 20여종으로 구성돼 있다. 직접 식재료를 고르는 나만의 버거 외에도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추천 버거도 즐길 수 있다. 시그니처 버거는 출시 당일에만 1000개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시그니처버거 플랫폼은 추가로 오픈한 6개를 포함해 총 9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추가된 강남 지역 6개 매장은 ▲청담DT점 ▲양재SK DT점 ▲삼성역점 ▲강남2호점 ▲강남구청점 ▲신사역점 등이다. 맥도날드는 연말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총 10여개 매장에서 추가로 시그니처 버거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맥도날드가 나만의 버거를 만들 수 있는 시그니처 버거 플랫폼 서비스를 강남지역 6개 매장에 추가 도입했다. 11일 청담DT점에서는 이를 기념한 행사를 열고 가수 로이킴이 직접 참여해 나만의 버거를 만들었다. /한국맥도날드

한편 이날 청담DT점 오픈 행사에는 가수 로이킴이 참석했다. 로이킴은 직접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식재료를 조합한 나만의 버거인 '로이킴 버거'를 만들었다. 로이킴 버거는 ▲브리오쉬 번 ▲100% 프리미엄 호주산 앵거스 비프로 만든 패티 2장 ▲아이올리 소스&빅맥 스페셜 소스가 어우러졌다. 여기에 아메리칸 치즈 2장과 매콤한 맛의 페퍼 잭 치즈에 버섯, 양파, 토마토 등이 추가됐다.

맥도날드 마케팅팀 조주연 부사장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신선한 프리미엄 식재료로 만든 탁월한 맛의 버거를 즐기고 싶은 고객들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지역 매장들에 추가로 시그니처 버거를 도입하게 됐다"며 "맥도날드는 앞으로도 시그니처 버거 운영 매장을 더욱 늘려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맥도날드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햄버거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정준양 향응와인 '1병 4000만원'

거래업체 '로마네 꽁띠' 제공
루이14세도 극찬한 희귀와인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거래업체로부터 향응받은 와인이 화제다.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와인은 세계 최고 몸값(?)을 자랑한다.

현재 정 전 회장은 회사에 15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이 향응받은 와인은 도멘 드 라 로마네 꽁띠(Domain de la Romanee-Conti)사의 '로마네 꽁띠'(사진)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세계 최고의 레드 와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와인은 루이14세가 극찬한 와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빈티지(포도수확 년도)에 따라 가격차가 큰 이 와인은 20년 이상된 올드빈티지는 4000만원에 달한다. 최근 국내에 유통되는 2009년 빈티지의 경우 29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가장 비싼 와인이자 가장 귀한 와인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 와인은 이름처럼 로마와 연관이 깊다.

5세기 로마군이 프랑스 부르고뉴를 점령하면서 로마가 소유했던 것에서 유래한 로마네 와인이 로마네꽁띠의 조상이다. 이후에는 생 비방 수도원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1749년 매물로 나오면서 정쟁에 휘말렸다. 당시 비밀경찰을 통솔하던 꽁띠공과 루이14세의 정부 퐁파두르 부인이 로마네를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였다. 왕의 측근과 정부가 와이너리를 두고 자신의 세를 과시했던 셈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와이너리의 소유권은 꽁띠공에게 돌아갔다.

로마네 꽁띠 한 병을 구매기 위해 도멘드 라 로마네 꽁띠사에서 나온 다른 와인들 ▲라 따슈 ▲리쉬부르 ▲로마네 생 비방 ▲그랑 에세조 ▲에세조 등 6종의 와인 12병 세트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 한 병을 위해 원치 않는 와인을 구매해야하는 부담에도 불구 매년 수많은 와인 애호가들이 구입을 위해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 때문에 곳곳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유선준 기자 rsunjun@

더페이스샵 오늘부터 반값

회원대상 20~50% 할인
수험표 지참 후 5000원 이상 구매
캐릭터마스크시트 2매 증정 행사도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가을을 맞아 12일부터 1주일간 최대 50% 할인하는 멤버십 데이를 연다.

이번 행사는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50~20% 할인 혜택을 준다. 온라인 회원은 더페이스샵 직영몰(www.thefaceshop.com/m)에서 구입해야만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IP·우수회원은 30%, 일반·신규 회원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회원등급과 상관없이 더페이스샵 회원이라면 누구나 클렌징 전품목, 기초·베이스 제품, 남성 기초, 홀리데이 스페셜 세트 등 다양한 아이템을 50%~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신규 회원가입 후 1만원 이상 구매 시 데일리퍼퓸핸드크림 체리블라썸 1개를 증정하고, 수능 수험생의 경우 수험표 지참 시 5000원 이상 구매하면 캐릭터마스크시트 2매 증정하는 등의 추가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표적인 반값 할인 품목으로는 부드럽고 촉촉한 쌀뜨물 클렌징 '미감수 브라이트 클렌징 폼', 진한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천삼송이 황금윤기 클렌징크림', 스킨·에센스·로션 기능을 모두 담은 '네오클래식 옴므 올인원 트리트먼트' 등이 있다.

또한 일반 고객 대상 20% 할인 품목인 '백삼 콜라겐 진주환'은 직경 7㎝ 환(丸) 형태 캡슐에 진주의 유효성분을 농축시킨 프리미엄 주름개선 및 미백 이중기능성 크림으로, 초도 생산물량이 완판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은 인기 제품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하늘에서 포카리스웨트가 떨어진다?

내달 6일까지 '건조타파 플래시게임'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가 '건조타파: 몸 속 섬모운동을 살리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포카리스웨트는 최근 건조한 날씨를 감안해 체내에 물과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보충을 하자는 내용을 담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건조타파: 몸 속 섬모운동을 살리자'는 포카리스웨트 공식페이스북에서 내달 6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제한시간 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먼지들을 피해 포카리스웨트를 받아먹는 플래시 게임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에게는 즉석경품으로 포카리스웨트 기프티콘(1400명)이 제공되며, 최종당첨자에게는 백화점상품권 100만원(1명), 황금열쇠(5명) 등 푸짐한 경품이 전달된다.

김규준 동아오츠카 마케팅전략팀장은

"체내 섬모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걸러주는 컨베이어벨트 역할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섬모들이 건조해져 외부 세균들에 쉽게 노출된다"며 "충분한 수분보충으로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생활습관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카리스웨트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pocariswea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현희 기자

안전보건공단 동반성장 '참 잘했어요'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안전보건공단이 '동반성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5 동반성장 주간' 행사에서 동반성장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해 이날 상을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협력사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동반성장을 위한 전사적 지표 마련 등의 추진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써 방호방치·보호구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중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등을 위한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동반성장 우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평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59개 공공기관 중

'동반성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안전보건공단의 이영순 이사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5 동반성장 주간'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있다.

10개 공공기관이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상생협력은 사회·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공단은 고유의 동반성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선도적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solanin@

“힘든 출·퇴근은 가라” 산단 옆아파트 인기

〈직장·주택 근접 아파트〉

교통·편의시설 가까워 3040 직장인들 선호
대우건설, 안성·아산 탕정에 1925가구 공급

안성 푸르지오 야경 투시도. /푸르지오

#1. 경기도 부천에서 판교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하는 이모(36)씨는 매일 3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보낸다. 인파가 몰리는 출근시간에 가장 복잡하다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까지 지하철을 이용, 이후에는 버스를 갈아타고도 약 30분을 더 가야 직장에 도착할 수 있다. 남들보다 빨리 집에서 출발해도 출근시간은 비슷하고, 오후 7시쯤 퇴근해도 오후 9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한다. 이 같은 생활을 약 3년 간 해온 이씨는 “하루 일과 중 가장 피곤한 것은 출퇴근”이라며 “개인 시간은 커녕 저녁밥 조차 제때 해결 못할 지경이라 내년 초 전세가 끝나면 바로 판교 인근으로 집을 옮기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2.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유모(48)씨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던 1년을 뒤로한 채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되며 최근 사내 테니스 동호회에서도 활동하는 등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된 유씨는 개인 취미생활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었다.

출퇴근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기 위해 업무지구 인근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주근접 아파트는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편의시설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30~40대 직장인 주택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최근에는 롯데건설이 이달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4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4537명이 몰려 평균 73.96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완판되면서 산업단지 인근 직주근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이 2년 만에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기도 안성시는 18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 곳에 입주한 기업은 207곳에 이른다. 2013년 밀폐용기 제작기업 락앤락이 18만5000㎡ 규모의 생산단지를 조성해 가동 중이며 지난 6월 독일 BMW사 자동차 부품 전용물류단지 조성 계획이 나왔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 600여 명 연간 매출 6100억 원의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안성 가사지구에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6~23층, 10개동, 759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59~74㎡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옆으로 안성 터미널이 있어 서울 등 광역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38번국도와 간선도로로 안성시내나 외곽 진출입이 쉽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LCD단지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아산 탕정 1산업단지, 천안 2·3산업단지, 천안 LG생활건강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천안 아산 지역에도 직주근접 아파트를 공급한다.

아산탕정택지지구의 마지막 아파트공급지인 2·3블록에 공급되는 ‘천안 불당파크 푸르지오’는 1166가구(아파트 510가구, 오피스텔 656실)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 99~134㎡가구와 오피스텔 단일 면적 84㎡로 구성됐다. 전 타입이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아파트 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리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거주를 위한 직주근접 주거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주근접 아파트는 출퇴근이 쉬울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성도 높아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며 “업무지구나 대형 산업단지 배후에 조성되는 직주근접 아파트는 해당 기업 종사자의 주거수요로 임대수요와 환금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분양하이라이트

포항에 ‘초곡리슈빌’ 들어선다

계룡건설
총 646가구… 교육·교통 우수

계룡건설이 이달 경북 포항 초곡지구 88B-1L에 ‘초곡 리슈빌’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646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84㎡ 570가구, 104㎡ 76가구로 구성된다.

초곡지구는 포항시 택지지구 중 최대 규모로 6400여 가구 1만7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사업비 943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완성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곳이 들어설 계획이다. 도로와 지구 내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3곳 등 공원과 도시기반시설은 완공됐다.

단지 인근에는 영덕, 대구로 이어지는 7번 국도와 KTX 포항역이 있으며 단지 바로 옆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의 일자 판상형으로 배치되며 넓은 동간거리로 일조권과 통풍이 좋다. 84㎡는 수납이 특화된 우수한 구조인 4베이 판상형으로 워크인신발장, 침실붙박이장, 주방팬트리, 안방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104㎡는 4베이 4룸에 거실 확장형으로 알파룸과 광폭주방, 워크인신발장, 침실붙박이장, 주방팬트리, 안방드레스룸 등이 설치된다.

초곡 리슈빌 조감도. /계룡건설

견본주택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106-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e편한세상 안동 강변 393가구 분양

고려개발
중심상권 이동 편하고 채광·조망 좋아

대림산업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이달 경북 안동시 용상동 1517-123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안동 강변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5개동, 393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114가구 ▲77A㎡ 136가구 ▲77B㎡ 125가구 ▲78㎡ 17가구 ▲116㎡ 1가구다. 전용 116㎡ 1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중소형 면적이다.

단지는 남향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을 높였고 e편한세상만의 아파트 내 끊김 없는 단열설계를 적용해 결로발생을 최소화했다. 단지는 낙동강과 연결되는 반변천과 수변공원이 인접해 조망이 좋다. 수변공원에는 풋살장과 농구장, 야구장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용상초등학교와 길주중학교, 안동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또한 학원가가 인접해 있으며 영화관과 시장 등 용상동 중심상권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내년 개통 예정인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를 이용할 경우 시내 접근성은 더욱 개선된다.

e편한세상 안동 강변 조감도. /고려개발

고려개발은 견본주택 오픈 전까지 경북 안동시 정상동 439-1번지(4층)에 사전 홍보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견본주택은 이달 경북 안동시 용상동 530-2번지에 열릴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국토부 가족으로 짧지만 행복”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퇴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8개월 만에 장관에서 물러났다.

유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토부 가족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애틋하다”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 동안 더 많이 불렀어야 했다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재임 중 성과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두 차례 내놓은 것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꼽았다. 민간임대특별법은 8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시행된다. 국토부 내에서는 여야 간 논쟁이 많았던 민간임대 특별법 통과에 정치인 출신인 유 장관이 정무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유 장관은 “두 번에 걸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은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서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며 “민간임대특별법 통과로 뉴스테이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장관은 “주택매매시장이 활기를 띰에도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탓에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앞으로 거취에 대한 질문에 “국회로 돌아간다”고 짧게 답했다. 자신의 경제부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상길 기자

“조합원들, 1억5000만원 더내라?”

둔촌주공 재건축 ‘추가분담금’ 시끌

설계변경이후 공사비 급증
시공사, 예상 분양가 공개

1만1000여가구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서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추가분담금이 최대 1억~1억5000만원 가량 높게 책정돼 추가분담금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인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기로 하고 최근 예상 일반분양가와 추가분담금을 공개했다.

분양가는 3.3㎡당 2400만원, 2600만원, 2800만원으로 가정하고 무상 지분율을 각각 132%, 145%, 158%로 제시했다. 2~3년 뒤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2400만원에 분양할 경우 조합원 보유 대지 지분의 132%까지는 무상 입주할 수 있다.

조합원은 2010년 시공사 선정 당시 ‘확정지분제’를 내걸고 일반분양 가격과 미분양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164%의 지분을 약속했는데 무상 지분율이 낮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상 지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조합원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둔촌 주공1단지 전용면적 52㎡(대지지분 63.1㎡) 소유자가 재건축후 입주할 아파트로 112㎡(전용 84㎡)를 선택할 경우 종전 164%의 무상지분율을 적용하면 추가분담금은 5823만원이다. 하지만 건설사의 예상 일반분양가인 2400만원에 내놓으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1억6084만원으로 1억원 이상 증가한다.

둔촌 주공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일반분양가를 3.3㎡당 2700만원으로 올리면 조합의 추가분담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일반 분양할 경우 2017년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3.3㎡당 분양가를 24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계획 단계에 비해 용적률과 설계 등 사업 조건이 대폭 바뀌면서 무상지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조합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해 용적률도 최대 300% 이상으로 높인다고 했지만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만 3종으로 상향돼 평균 용적률이 273%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일반분양이 감소하면서 조합 수입이 줄고 추가 분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5년 전에 비해 공사비가 상승했고 일부 설계 변경이 진행돼 무상지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공사의 설명이다. 추가분담금이 늘자 지난주부터 시세는 약세로 돌아섰고 매매 거래도 거의 끊겼다.

주공 3단지 102㎡는 지난달 초 7억8000만원에 팔렸으나 현재 7억6000만원 선으로 2000만원가량 하락했다. 4단지 102㎡는 같은 기간 7억60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 7억4000만~7억4500만원 선으로 1500만~2000만원 떨어졌다. /박상길 기자

“韓 방문시 집에 온 느낌” 데미안 라이스 서울 공연

8년 만의 정규 3집 기념 투어

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 한국을 다시 찾는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1월 8년 동안의 공백을 깨고 발표한 정규 3집 앨범 ‘마이 페이보릿 페이디드 판타지(My Favourite Faded Fantasy)’의 발매 기념 투어의 일환이다. 올해는 새로운 도시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데미안 라이스의 요청으로 특별히 부산 공연이 결정됐다.

최근 이메일 인터뷰로 만난 데미안 라이스는 “항상 서울에서만 공연해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싶었다”며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바다 수영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렌다”고 공연을 앞둔 들뜬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한국을 찾을 때마다 ‘집에 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한국 팬 사랑에 대한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

데미안 라이스의 공연은 정해진 셋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연 당일의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곡을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 다만 이번 공연은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진행되는 만큼 “무대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 공연에 비해 사운드도 다르고 훨씬 역동적일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데미안 라이스의 내한공연은 오는 22일 오후 6시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과 24일 오후 8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서울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장병호 기자

상큼함의 비결? 맑고 긍정적인 생각이죠

‘세상끝의 사랑’ 한은정

한은정(35)이 4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왔다. 김인식 감독의 신작 ‘세상끝의 사랑’을 통해서다. 남편이자 아빠를 떠나보낸 뒤 단둘이 지내온 두 모녀가 한 남자의 등장으로 겪는 갈등과 파국을 그렸다. “연기로 각인될 수 있는 작품”을 기다려온 한은정으로서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여자 캐릭터가 이야기 중심에 있다는 점이 한은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선뜻 출연을 결심할 수는 없었다. 시나리오부터 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감했다. 그렇게 영화를 선택하기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했다.

“시나리오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연기를 잘 하는 배우가 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운 작품이라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배우로서 한 스텝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영화에서 한은정은 대학강사 자영을 연기했다. 미모와 지적인 매력을 모두 갖춘 대학 강사다. 폭력을 일삼던 전 남편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영화는 자영과 자영이 일찍이 결혼해 낳은 딸 유진(공예진), 그리고 자상한 모습으로 이들에게 다가오는 남자 동하(조동혁)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과 관계의 극단적인 단면을 이야기한다.

4년만의 스크린 복귀작

딱 부러지는 성격 싫지 않지만 데뷔 16년 맞아 여유 부리기도

한은정이 ‘세상끝의 사랑’을 어렵다고 받아들인 것은 캐릭터의 감정 표현 때문이었다. 영화를 연출한 김인식 감독은 ‘로드무비’ ‘얼굴없는 여자’ 등 개성 넘치는 작품을 주로 선보여왔다. ‘세상끝의 사랑’에서는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심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들이 처한 상황과 행동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캐릭터를 이해하고 연기해야 하는 배우에게는 큰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감독님은 영화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영화에도 관객들이 생각을 하게끔 암전을 중간마다 넣었죠.” 한은정의 말처럼 영화는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왜 자영이 동하에게 끌렸는지, 동하는 왜 자영과 결혼을 했으면서도 유진을 향한 마음을 지우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는다. 한은정은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자영을 보면서 “불쌍한 여자”라는 생각도 했다. 그럼에도 자영을 이해하며 연기하고자 노력을 쏟았다.

누군가는 ‘세상끝의 사랑’을 현실에서 만나기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은정은 “우리 영화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에서도 친구의 친구를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도덕적인 것을 벗어나는 일들도 많고요. 우리 영화는 단지 설정을 모녀와 한 남자로 설정했을 뿐 현실에서 크게 벗어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객 입장에서 공감할 수도 있고 대리만족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관객 입장에서는 불친절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한은정은 “그런 불편함도 즐겨주면 좋겠다”며 웃었다.

“우리 영화는 세 남녀의 관계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본능적인 사랑의 감정에 대한 위험성을 다룬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을 미화시키고 꾸며낸 영화는 아니에요. 진짜 현실 세계의 민낯처럼 사랑을 그린 영화죠.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즐겨주면 좋겠어요. 분명 누군가는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니까요(웃음).”

김인식 감독이 한은정을 캐스팅한 것은 그동안 보여준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자영과 잘 어울릴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한은정 또한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잘 알고 있다. “딱 부러지는 모습이 있죠.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런 이미지도 좋아요. 굳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연기로 풀어야 하는 숙제니까요.”

연기 활동 초반에는 “배우로서 입지를 굳혀야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데뷔 16년차에 접어든 지금 한은정은 “크게 욕심을 내거나 목표를 정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여유를 갖게 됐다. “진부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항상 상큼하고 싶고요(웃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요? 긍정적이고 맑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야노 시호 첫 토크쇼 출연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아내이자 모델인 야노 시호가 한국 토크쇼 프로그램에 생애 처음으로 출연한다. 솔직한 입담부터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인다. 딸 추사랑의 표정 모사로 웃음을 선사한다. 추성훈의 아버지 추계이, 방송인 사유리, 모델 변정민 등이 동반 출연한다.

/정리=장병호기자 solanin@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5:05 코미디 빅리그 Hot clip (재)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5:10 건강 플러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6:10 더 라이트:악마는 있다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백세기획	07:50 수요미식회		06:50 오직 그대만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8:20 줄리&줄리아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응답하라 1988 (재)		09:00 전국노래자랑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10 좋은아침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00 SBS 뉴스	09:00 유자식상팔자 (재)		10:30 한번도 안해본 여자	
11:00 특집 무형유산 6마당 우리 전통의 멋과 흥	10:40 지구촌 뉴스	09:40 기분 좋은 날	10:30 SBS 생활경제	10:20 비정상회담 (재)			
11:55 안녕 우리말	11:00 인간의 조건 스페셜	11:00 내 딸, 금사월	11:30 웃찾사 스페셜	11:55 타인의 취향 (재)			11:10 엔드 오브 데이즈
12:00 KBS 뉴스 12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2:00 MBC 정오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집밥 백선생 (재)	12:30 A-특공대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2:20 2015 아름다운 동행	12:50 2015 프리미어 12 예선	13: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3:30 첨밀밀
13:50 별별가족 (재)	14:00 KBS 뉴스타임	13:2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3차전,대한민국:베네수엘라,	14:35 JTBC 뉴스 현장	14: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4:00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14:10 생활의 발견 (재)	14:30 내 품에 라비와 친구들 스페셜	대만생중계 / (2안)			15:10 의형제	
15:40 야생일기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00 MBC 뉴스		15:50 4시 사건 반장			15:50 박수건달
15:55 튼튼생활체조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5:1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6:10 할매네 로봇 (재)	17:40 핸콕	
16:00 오늘의 경제	16:00 TV 유치원	15:55 프리파라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6:10 한 뼘의 기적, 텃밭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7:30 변신자동차 또봇	17:10 5시 정치부 회의	17:30 코미디 빅리그 (재)		
17:00 KBS 뉴스 5	16:40 동물의 세계	17:00 MBC 이브닝 뉴스					
17:20 시사진단	17:00 위기탈출 넘버원 (재)						
18:00 6시 내고향	18:00 글로벌24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8:00 생방송 투데이	18:3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8:20 21
18: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JTBC 뉴스룸	19:00 수요미식회 (재)	19:40 이스케이프 플랜	
19:00 KBS 뉴스 7	19:50 다 잘될 거야	19:50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19:20 돌아온 황금복		20:20 어쩌다 어른		20:50 주말 N 영화
19:30 한국인의 밥상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지역 2차예선 대한민국:미얀마	20:00 SBS 8 뉴스		21: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22:00 R.I.P.D.유령퇴치전담반	
20:25 우리 집 꿀단지	20:55 비타민	22:00 MBC 뉴스데스크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1:30 최고의 사랑			
21:00 KBS 뉴스 9		22:55 빅프렌드			23:00 슈퍼스타K7		22:00 여의도
22:00 KBS 다큐 1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4:15 MBC 뉴스 24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2:50 썰전			
23:00 KBS 뉴스라인	23:10 해피 투게더	24:40 MBC 다큐프라임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50 처음이라서 (재)	24:00 옹박:리턴즈 오브 레전드	
23:40 유럽인이 사랑한 한국문화, 그 130년의 이야기	24:45 스포츠 하이라이트			24:20 타인의 취향 스페셜			24:00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24:35 나이트라인				

12일(목)

달라진 롯데, 신동빈의 진의는

박 종 국 의
재계이야기

언론사에 계시는 선배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다. "롯데하면 껌, 과자, 백화점, 부산 갈매기, 짠 월급" 그리고 뭐가 더 있는 줄 알아? 라고 물어왔다. 내가 대답을 못하자. "기사 써도 반응이 없고 손목만 아파" 라며 피식 웃었다.

잘 아는 롯데 임원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런 소릴 하냐"며 언짢아했다.

호남석유화학(현재 롯데케미칼)도 있다며 내게 큰소리를 친다. 하지만 5대그룹 치고는 제조업이 너무 빈약하다.

그 선배 말대로 롯데 그룹의 주력은 롯데제과, 호텔, 임대,유통업 이었다.

재벌닷컴이 조사한 10대 그룹 (2014 회계연도) 임원 평균 보수를 보면 롯데그룹 직원 평균 급여는 3731만원으로 9위 한진그룹 뒤다. 꼴찌다. 9위 한진그룹 5764만원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또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직원의 평균급여 7564만원의 절반수준이다.

◆신동빈스타일의 롯데를 만들고 있다.

제조업과는 거리가 먼 롯데가 경천동지할 일들을 벌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빅딜에서 삼성의 화학계열 회사를 인수한 것이다. 삼성SDI의 케미칼 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 지분 포함)을 3조원대에 샀다.

롯데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은 14조9000억원이다. 삼성화학부문의 매출 4조3000억원을 합치면 20조원에 근접한다.

이제 롯데그룹 매출에서 제조부문(화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다.

롯데케미칼은 미쓰비시 석유화학으로부터 폴리에스텔른 공정을 도입했다.

반찬용기 회사가 이걸 가져다 온갖 제품을 만든다. 그 외 PVC 케이블 등을 만드는 재료를 만들어 왔다. 한마디로 일반 프라스틱 소재를 만들어 왔다.

이번 빅딜로 롯데의 화학은 전자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넓혀지게 됐다.

유통, 과자 산업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던 롯데케미칼이 그룹 주력회사로 자리잡게 됐다. 또 국가기간산업(Key Industry)을 본격적으로 손을 댔다는 의미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의 인수·합병(M&A)을 알리면서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삼성계열 화학회사 임직원은 총수에 대한 지지로 응답했다.

세간에는 신 회장이 한국 노사문화(중후장대한 장치산업)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 삼성화학 임직원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신 회장은 보란 듯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신동빈 회장의 결단은,

지난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부회장과의 빅딜로 삼성테크윈·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삼성탈레스를사들였을 때 삼성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비교가 된다. 유통업도 수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신동빈 회장은 보여주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다. 필자가 베트남 호치민을 가보니 롯데마트가 고전을 하고 있었다. 이유를 몇 사람에게 물었다. "길목이 좋은 곳에 롯데가 마트를 내려 해도 온갖 투서와 법적시비를 걸어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현지화의 초기 단계에서 늘 겪는 일이다. 롯데 현지직원은 " 신동빈 회장이 그룹에 본격적으로 관여한 뒤부터 해외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고, 단기간의 성과보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귀띔 했다.

껌,과자, 유통업, 임대사업이 주류이지만 신 회장은 유통업도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전략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그룹을 물러 받으며 타 그룹이 그랬던 것처럼 형제 간 재산전쟁을 했다. 아직도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불씨가 꺼지진 않았다. 규모는 작지만 2013년 카자흐스탄 제과업체 '라하트'를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롯데의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그룹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다.

■ 신동빈 회장의 남은 과제

얼마 전 회계사 친구에게 롯데 순환출자표를 보여주고 설명을 부탁했다.

그 친구가 내게 한말이다. " 미적분 수학 문제를 보는 듯 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신 회장은 언론의 지적을 받아온 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스스로도 금융권에서 7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지분을 정리하는데 보태기로 했다고 한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회장과의 법정 소송문제도 남아있다. 또 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면세점 사업권을 지켜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롯데호텔 매출의 80%가 면세점에서 발생한다. 얼마전 신동빈 회장은 비전을 발표하면서 면세점 사업을 세계최고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가 유연한 롯데를 만들겠다고 말했듯이 일하는 방식과 조직운영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숙제다.

신동빈 회장은 기존의 롯데 신격호 회장의 은둔·신비주의적 경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힘차고 활력이 넘친다.

재계와 국민은 대한민국 5대 재벌 롯데의 새로운 변화를 반기며 지켜보고 있다.

〈객원논설위원〉

| 약 력 |
대학에서 사회학, 통신공학(석사)을 공부했다. 한국정보통신(주) 팀장, 현대그룹 그룹홍보실 부장, 오리온 홍보실 실장 역임

위안부 문제 해결 진일보 맞나

기자 수첩
연 미 란
〈정경사회부〉

바야흐로 전쟁이다. 한쪽에선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전쟁이 확산일로에 있고, 또 다른 쪽에선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간 총성없는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자는 이미 확정고시가 끝나 사실상 종전상태에 있지만 후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치의 연속이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났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일본에 회담을 제안,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첫 만남인 만큼 국내외 외신들은 이들의 만남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적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은 선에서 양국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관전 포인트였다.

회담 직후 청와대가 밝힌 회담의 골자는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자국으로 돌아간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면서 법적 보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도 모자라 최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대화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보수 성향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7일과 10일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했다',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즉각 청와대가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회담 다음날인 3일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한 날이다. 정부가 이념 논쟁과 더불어 외교적 성과까지 없을 경우 입게 될 타격을 우려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11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입장차가 큰 만큼 해결은 난망하지만 실질적 진일보가 필요한 때다. 현재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7명,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숨기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actor@metroseoul.co.kr

냉전시대 '위기의 해결사' 브란트 '동방정책' 계승자

슈미트 前서독 총리 96세로 별세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사진**)가 96세의 일기로 1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지난 9월초 다리의 혈전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자택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결과다.

슈미트 전 총리는 1974년 사회민주당(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자신의 비서인 귄터 기욤이 동독의 스파이로 밝혀지면서 갑자기 사임하자 그의 뒤를 이었다. 슈미트 역시 사민당 출신으로 브란트 내각에서 국방장관에 이어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었다.

슈미트 전 총리는 1982년까지 총리를 지내는 동안 '위기의 해결사'였다.

그의 재임기간에 중동발 석유파동, 실업난, 스태그플레이션 등 위기가 이어졌다. 그는 환율안정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당시 서독은 사회적 위기도 심각했다. 서유럽을 휩쓴 68 혁명 이후 온건파와 분리된 강경 학생 운동 세력들이 적군파가 되어서 사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납치와 암살, 테러를 자행했다.

슈미트 전 총리는 이를 정면돌파했다. 1977년 루프트한자 납치사건 강제진압이 대표적이다. 서독은 특공대를 투입해 민간인 191명을 무사히 구출해 냈다. 슈미트 전 총리는 이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일이 잘못되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각오했다"고 밝혔다. 서독은 그로 인해 1972년 뮌헨 올림픽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게 됐다.

그는 브란트가 추진했던 동방정책의 계승자이기도 했다. 헬무트 콜에게 총리 자리를 내준 뒤에는 언론인으로 변신, 주간지 '디 차이트'를 발행했다. 젊은 시절 2차대전중 기갑장교로 활약해 철십자 훈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치에 대한 반감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송병형 기자 bhsong@

社 說

산업현장 안전사고 이제 그만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조선업체이다. 그렇기에 경영이나 산업안전에는 완벽할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런데 최근 대형부실과 거액의 적자를 내 금융사의 긴급지원을 받게 된데 이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있따라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는 지난 8월 24일에 2도크에서 건조중인 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석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다. 10일에도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000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가 1명이 숨졌다. 또 7명의 근로자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회사쪽에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개념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현장(제2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장)에서는 100m 높이의 이동식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인천공항은 국제적으로 서비스 좋기로 이름난 공항이다.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만 좋았지 우리 근로자의 안전은 가벼이 여긴 탓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서 선박건조나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안전수칙이 정리돼 있을 것이다. 그런 후진적인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고가 아직도 일어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공정관리나 작업관리 과정에 무언가 허점과 소홀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부는 11일 사고를 낸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만으로 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5개월 만에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

생활 법률

근로기준법상 '30일 전 예고' 명시
단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가능

A씨는 월급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의료회사에 고용됐다. 그러나 5개월 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수당 항목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동법 제2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할 때에만 유효하게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를 하고 예고 수당을 준다할 지라도 해고로써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제35조에서는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한 자 ▲수습 근로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해도 A씨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다. 만약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해고 자체를 다퉈볼 수 있다.

한편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기준을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6월이라는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미란 기자

인사

◇ 국세청(본청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상준 △ 전산기획담당관실 최인우 △ 감사담당관실 정근형 △ 심사1담당관실 구제승 △ 국제협력담당관실 민회준 △ 징세과 김학선 △ 법령해석과 황남욱 △ 전자세원과 권승욱 △ 법인세과 김광칠 △ 소비세과 나정엽 △ 자본거래관리과 김해진 △ 조사기획과 이임동 △ 조사1과 노삼식 △ 조사2과 이주연 △ 소득지원과 홍성표 △ 운영지원과 윤영일

부고

▲ 박봉기씨 별세, 박경태(한국도장산업 대표이사)·경국(서울시농구연합회 심판부 팀장)·지연(대신증권 창원지점 차장)씨 부친상 = 11일 오전 6시,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9시 055-290-6289

▲ 손병도씨 별세, 손준수·관수(CJ대한통은 대표이사)·경수·경화·경희 씨 부친상 = 10일 오후 6시50분, 충북 증평장례문화원 특 5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4일장). 043-838-9936

▲ 홍남님씨 별세, 김준호(개인사업)·경호(진광유통 대표)·경주(키움증권 업무개발팀장)씨 모친상 = 10일 오전, 광주현대병원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7시, 062-570-0444

▲최양식씨 별세, 최영애·광섭(휴먼리소스 대표)·준섭(국일구조 상무)·용섭(NH투자증권 이사)씨 부친상 = 11일 오후 2시, 경기 이천 효자원장례식장, 발인 13일(031-631-4411)

▲최충환씨 별세, 신현철(인쇄업)·정현·명현·남현·영임 모친상, 강대남(유통업), 송원영(LG유플러스 홍보팀 차장)씨 장모상 = 11일 서울뉴타운장례식장 9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2-909-444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건축과 졸업 후 취직이 안돼 고민입니다 공부한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수리아 남자 87년 6월 23일 음력 늦은 저녁

Q 날씨 추워지는데 안녕하신지요. 신문을 인터넷에서 보고 있으며 '사주 속으로'를 흥미 있게 보고 있는 청년입니다. 젊은이답지 않게 역학이라는 미래 학문에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역학이 옛날에는 제왕 학으로서 왕이나 일부 고관들만 보던 비술(秘術)이었다는데 지금은 대중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장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쭙습니다.

아직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취업 준비 1년생입니다. 건축과를 졸업했는데 과연 이것이 저의 장래 진로로서 합당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취업도 잘 안되고 특별히 잘 하는 것도 없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갈 길을 알려 주세요.

A 이순신장군을 떠올려보십시오. 옛 부터 전쟁에 임하는 장수가 전장 터에서 필히 지켜야 할 것이 지피지기(知彼知己)해야 백전백승(百戰百勝)한다고 했습니다. 역(易)에서 학술적인 풍수를 알면 알맞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사주를 알면 운의 흐름에 따라 순응하여 자신의 성정과 특정·재질에 맞춰 세상일에 적응해 나가서 실수가 없고 평온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는 '태산'과 같은 성정으로 시련을 거친 다음에 높은 산과 같이 당당해지고 위세가 등등해 집니다. 일덕(日德)은 성격이 착하고 자비스러운 반면 대략 우직하고 고집이 있는데 대인관계에서 신용을 중히 여겨야할 것입니다. 백호살(白虎殺)은 혈광지사(血光之事)를 언급 할 만큼 흉포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운이 좋으면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데 부연설명을 해본다면 미래에 처궁(妻宮)에 액(厄)이 닥칠 공산이 크다고도 표현됩니다. 또는 재물로는 나이 들수록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기이한 발복도 기대합니다. 이는 재물인 재고(財庫)에 부자를 암시하는 길성(吉星)이 있는데 암합되어 있으므로 운에서 운이 열리듯 개고(開庫)하여 거쳐지면 흉함이 길 성으로 바뀌고 길함이 있어 누군가에게는 큰 산의 기운처럼 의지처가 되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정인용식상격(正印用食傷格)으로 식상은 물질문명의 발달된 형태를 현실에 적용해 순응하게 되니 공부한 분야에 좀 더 신경 쓰십시오. 직업에 종사하면서 여가를 활용하여 취미나 문화강좌, 레포츠, 오락 등을 즐기는 특성을 지니는데 현실에 맞는 안정된 직업과 여가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차후에 제왕학인 풍수를 익히고 안정된 삶을 구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1월 12일 (음 10월 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년생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72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4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소 4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1년생 사랑은 기대도 하지 않은 곳에서 다가옵니다. 73년생 꿈 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85년생 삶에 의지가 솟구칩니다.

호랑이 50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62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74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합니다. 86년생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소신 있는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63년생 인복이 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유행성 독감을 주의하세요.

용 52년생 바람기는 절대로 안됩니다. 64년생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88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뱀 53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릅니다. 65년생 조심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길합니다. 77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89년생 윗사람 중에 한 분이 위독합니다.

말 54년생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세요. 66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습니다. 78년생 유비무환이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90년생 좀 더 적극적인 의견 피력으로 중심을 잡을 시기입니다.

양 55년생 당신의 운은 계속 유지 될 것입니다. 67년생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길합니다. 79년생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91년생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원숭이 56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 부치면 성공할 운입니다. 68년생 좋은 기운이 몰려옵니다. 80년생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능력 밖의 일을 귀하는 추진중입니다.

닭 57년생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9년생 큰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81년생 희망이 보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93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개 58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습니다. 70년생 매사 일 처리에 조심하세요. 82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94년생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세요.

돼지 59년생 현재 상태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길합니다. 71년생 재물을 흘리는 운 입니다. 83년생 시험운이 매우 좋습니다. 95년생 남쪽에 귀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2	1	9	7	3	4	5	8	6
4	7	5	9	8	6	1	3	2
8	3	6	9	2	5	7	4	1
3	5	7	6	9	1	2	8	4
1	2	3	8	4	7	9	6	5
5	9	4	2	1	3	8	7	6
6	4	2	5	7	9	3	1	8
7	8	1	4	6	2	5	9	3
9	6	8	3	5	8	4	2	7

5	1	4	2	7	9	6	8	3
6	9	8	1	5	3	2	7	4
7	4	3	8	6	2	1	9	5
8	3	9	6	4	5	7	2	1
4	6	5	9	1	7	3	4	2
1	2	7	3	8	4	9	5	6
9	5	1	7	2	6	4	3	8
3	8	6	4	9	1	5	6	7
2	7	4	5	3	8	7	1	9

		4	6	8		1		
9						3		5
3					2			
8		1		4				
5		3		9		8		1
				1		7		3
			5					8
2		9						4
		5		3	7	9		

			4		7	1		6
					6	3		2
9				2		5	7	
5		9						1
				4				
2						7		8
	9	2		6				7
7		5	3					
3		6	9		2			

E channel × DRAMA cube
E채널 X 드라마큐브 동시방송
당신의 심장은 지금 우리들 만큼
뜨겁게 뛰어본 적이 있는가
로드트립 공감 드라마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매주 일요일 밤 11시 본방송
김동욱 | 이청아 | 최여진 | 윤종훈 | 최민 길해연 장호일 정이랑 이희진 미람 조병규 | 특별출연 | 권해효 홍석천 김강현 이동훈 | 극본 | 박상희 | 연출 | 최도훈
기획 박기성 전찬욱 제작 변장욱 프로듀서 이주하 제작총괄 임영진 제작프로듀서 박진형 조연출 박현수 박소현 FD 최동성 노상덕 SCR 윤혜진 로케이션 강동석 촬영감독 곽상훈 박경석 촬영1ST 감남일 촬영팀 신순섭 백민호 이영주 조명감독 김남원 조명1ST 한성식 조명팀 박영하 윤재형 유우탁 이진영 발전차 남상배
동시기사 이양우 동시녹음팀 유홍상 유충식 장비 정재근 김상훈 미술기획 (주)디자인디렉터그룹 미술감독 김동훈 미술팀 권동현 신은실 사지은 소도구 프로비젼택 셰트데코레이터_임삼묵 최용진 소품살장 김윤희 소품 최영미 박상은 소품차 안유진 분장 박유현 김혜연 유영선 의상 안하영 정진택 황윤선 편집 최연주 편집보
박가현 캐스팅 디렉터 김추석 김건보 나선화 무술감독 권승구 보조출연 유영호 김경태 렉카 정원종 특수효과 민창기 렌터카 남산_김동선 음악감독 김기형 CG 이득진 D.I 이용직 스틸 박지나 방진희 메이킹 김진우 윤지혜 데이터 메니저 최용준 스탭차량 박광열 연출차량 김태율 카메라차량 김상섭 의상차량 변경천 편성기획
류기영 김영린 진단비 운행기획 조정은 홍보 이서연 포스터 촬영 스튜디오제즈 손재민 박진영 포스터 디자인 임재성 OAP 이인경 박지은 김아름 허정임 광고기획 서상국 안창현 박동빈 주진홍 IMC 김은정 오철민 이경임 이장식 정현준 경영지원 김병조 박봉한 주기산 한아름 최한솔 김수정 해외배급 이충효 소원섭 이예원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 N CINE f tvN FOX FOX life FX

미얀마 빗장 '닥공'으로 뚫는다

미리보는 '미얀마전 베스트11'
석현준 원톱·구자철·남태희 날개
'4-1-4-1' 공격형 포메이션 유력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8시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미얀마와의 5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대표팀은 지난 10일 손흥민(토트넘)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 유럽파 선수들의 귀국으로 전원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평소 4-2-3-1 전술을 많이 써온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미얀마전에서 공격적인 4-1-4-1 포메이션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가 수비에 치중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슈틸리케호는 지난 6월 미얀마와의 원정경기, 그리고 9월 라오스와의 홈 경기에서 4-1-4-1 전술로 공격에 무게를 두고 득점을 노려왔다. 미얀마전에서는 두 골(2-0)밖에 넣지 못했지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라오스전은 8-0으로 승리했다.

까다로운 상대였던 레바논과의 원정경기에서도 4-1-4-1 포메이션으로 3-0 완승을 거두고 중동 원정 징크스를 깼다. 4-2-3-1 만큼 익숙한 전술이 된 것이다.

미얀마와의 일전에 나설 원톱으로는 석현준(24·비토리아FC)이 유력하다. 지난 9월 레바논전과 10월 쿠웨이트전 모두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다. 쿠웨이트전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놓쳐 슈틸리케 감독의 아쉬움을 산만큼 이번 미얀마전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미얀마전 예상 선발 라인업〉
2018 러시아월드컵 2차 예선G조
12일 밤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MBC 중계)

연합뉴스

좌우 날개에는 구자철(26·아우크스부르크)과 남태희(24·레퀴야)의 포진이 예상된다. 구자철은 쿠웨이트전에서 결승골로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과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은 부상 재발 우려가 있는 만큼 후반 교체 출전이 관측된다. 다만 미얀마의 골문이 예상만큼 열리지 않는다면 조기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에는 기성용(26·스완지시티)과 이재성(23·전북)이 함께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정우영(26·빗셀 고베)이 나서 공수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비는 최근 소속팀에서 선발 출전하는 김진수(23·호펜하임)가 왼쪽을 맡는다. 김영권(25·광저우 헝다)과 곽태휘(34·알힐랄)는 중앙에서 든든한 벽을 쌓는다.

장현수(24·광저우 푸리)는 오른쪽에서 미얀마의 공격을 차단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측면을 파고들어 득점에 물꼬를 터줄 계획이다. 이번 경기엔 김승규(25·울산)가 골키퍼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11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열린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공식 포토콜 행사에서 올해 KLPGA투어 대회 우승자 김민선(왼쪽 위부터), 하민송, 고진영, 이정은, 김보경, 박성현, 김혜윤, 이정민, 조윤지, 오지현, 전인지, 안신애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LPGA, 3년 만에 무관의 신인왕?

내일부터 KLPGA투어 마지막대회
박지영 유력… 2위 김예진 맹추격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오는 13일부터 3라운드 경기로 치러지는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을 끝으로 2015년 시즌 막을 내린다.

올해 상금왕은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확정적이다. 최우수선수(MVP)격인 대상을 놓고 이정민(23·비씨카드)이 추격을 벌이고 있지만 역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정민이 우승해도 전인지가 8위 이내 입상하면 대상은 전인지 손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정민이 3위 이내에 들지 못하면 전인지는 꼴찌를 해도 대상을 차지한다.

신인왕 경쟁에서는 박지영(19·하이원리조트)이 유력하다. 박지영은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에서 21위 이내에만 들면 신인왕 레이스 2위 김예진(20·요진건설)이 우승해도 신인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KLPGA 투어에서 3년 만에 우승컵 없는 신인왕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박지영과 김예진 가운데 한 선수가 시즌 최종전인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박지영은 우승 없이 신인왕을 타게 된다.

1990년부터 탄생한 KLPGA 투어 신인왕 24명 가운데 우승 없이 이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는 절반이 넘는 13명에 이른다. 하지만 박세리(38) 이후 탄생한 신인왕은 대부분 데뷔하던 시즌에 투어 대회 우승을 경험했다. 박세리부터 18명의 신인왕 가운데 12명이 우승을 통해 신인왕 타이틀을 따냈다.

올 시즌 신인왕이 유력한 박지영 선수.

가장 최근에 우승 없이 신인왕을 배출한 시즌은 2012년이다. 당시 김지희(21·비씨카드)는 19개 대회에 출전해 톱10 두 번 입상에 상금랭킹 34위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에 그쳤지만 데뷔 동기들이 신통치 않은 성적을 기록한 덕분에 신인왕이 됐다.

투어 안팎에서 우승 없는 신인왕 탄생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대형 신인 실종'이라는 다소 걱정스러운 시각이다. 또 다른 시각은 이제 KLPGA 투어가 신인이 쉽게 정상을 넘볼 수 없을 만큼 선수층이 두꺼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투어에 합류한 2년차 선수들은 올해 신인들을 압도했다. 올해 상금랭킹 2위 박성현(21·넵스)을 비롯해 3승을 올린 고진영, 한차례씩 우승을 신고한 하민송(19·롯데), 오지현(20·KB금융), 김민선은 모두 작년에 데뷔한 2년차 선수들이다. /장병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07:08 | 해짐/17:24

11월 12일 목요일 (음력 10월 1일)

우중충한 수능날 아침… 제주도엔 밤부터 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춘천	강릉	세종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목포	제주	대구	창원	포항	부산	울릉
최저	6	13	8	9	10	10	9	6	15	9	6	12	13	9
최고	17	9	18	18	18	19	19	18	18	17	18	15	18	13
오전 강수확률(%)	20	80	20	20	20	20	20	20	20	20	20	30	20	30
오후	20	60	20	20	20	20	10	10	30	20	20	30	2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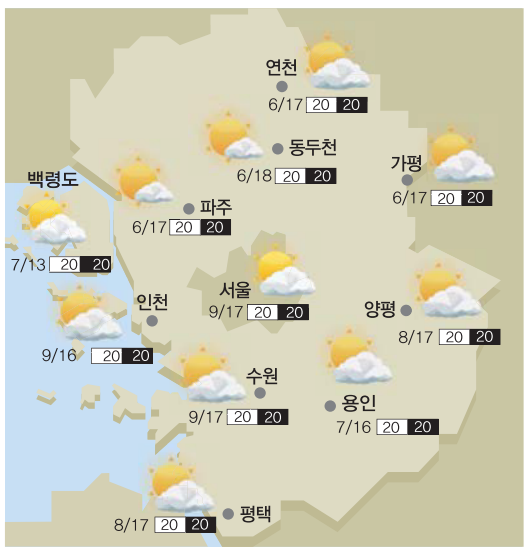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17 ~ 9 ℃

자외선 지수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08:38/20:40	02:03/14:37
인천	04:56/17:17	11:10/23:40
울산	04:17/17:17	04:17/17:17
군산	03:18/15:43	10:01/22:33
목포	02:08/20:40	02:03/14:37



강정호 'NL 신인왕' 한발 성큼

맷 더피 등 최종 후보 3인에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성공적인 행보를 보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2015년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왕 최종 후보 3인에 선정됐다.

MLB닷컴이 11일(이하 한국시간) 공개한 각 리그 신인왕 후보에 따르면 강정호는 크리스 브라이언트(시카고 컵스), 맷 더피(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함께 내셔널리그 신인왕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강정호는 한국 야수로는 처음으로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 데뷔 첫해 126경기에 나서 타율 0.287·15홈런·28타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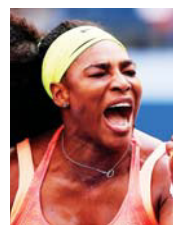
현지 언론은 브라이언트의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이언트는 타율 0.275·26홈런·99타점을, 더피는 타율 0.295·12홈런·77타점을 올렸다.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은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로 선정하며 결과는 17일 발표된다.

MLB닷컴은 각 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사이영상 후보도 공개했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로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잭 그레인키와 클레이턴 커쇼, 그리고 시카고 컵스의 제이크 아리에타가 경쟁한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후보는 소니 그레이(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댈러스 카이클(휴스턴 애스트로스), 데이비드 프라이스(토론토 블루제이스)다.

워싱턴 내셔널스 외야수 브라이스 하퍼는 폴 골드슈미트(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조이 보토(신시내티 레즈)와 내셔널리그 MVP 자리를 놓고 다툰다. 조시 도널드슨(토론토), 마이크 트라우트(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로렌조 케인(캔자스시티 로열스)은 아메리칸리그 MVP 후보에 선정됐다. /장병호 기자

테니스여제 세리나 윌리엄스 143주 연속 세계 1위 대기록



여자프로테니스(WTA)의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사진)가 2시즌 연속으로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한 차례도 놓치지 않는 대기록을 세웠다.

11일(한국시간) WTA 홈페이지에 발표된 세계 랭킹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이번 주까지 143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2014시즌에 이어 2015시즌까지 1위 자리를 완벽히 수성했다.

이 기록은 1980년대 테니스 스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미국), 슈테피 그라프(독일)에 이어 3번째다. 1990년대 들어서는 처음 세워진 것이다. 나브라틸로바는 1982년 6월 14일부터 1985년 6월 9일까지 15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최초로 이 기록을 작성했다. 이어 그라프가 1987년 8월 17일부터 1991년 3월 10일까지 장장 186주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윌리엄스는 2015시즌에만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에서 다섯 차례 우승했다. 상금은 총 1058만2642 달러(약 124억원)를 벌었다. 비시즌 기간 계속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만큼 윌리엄스는 올해 마지막 주가 되면 150주 연속 1위라는 기쁨도 누리게 된다. /장병호 기자

새로운 SI가 적용된 르노삼성 전시장 내부 모습.

“변신은 무죄” 車 전시장의 꽃 단장

‘카페 접목’ 테마전시장 등 특성화 매장 열고
1대1 맞춤고객 서비스·車 테마파크 등 도입
르노삼성, 연말까지 80곳에 새 SI 적용키로

자동차 전시장이 변신하고 있다. 기존 전시장들이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 제품의 기능적인 면을 부각시켰다면, 최근에는 고객들이 쉽게 접근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며 자동차는 부수적으로 구경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고객들의 전시장 방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콘셉트를 적용한 매장과 서비스센터를 선보이고 있다. 과거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수리, 점검을 받으러 매장을 방문 할 경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차량 구매차 전시장을 방문하면 딜러에게 틀에 박힌 순서로 소개 받는다. 또 서비스센터는 차량을 수리하거나 점검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긴 매 한가지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운전자들이 마음 편히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에 새로운 콘셉트를 적용하고 있다.

◆르노삼성 서비스 강화·신차 “명성 되찾자”

르노삼성자동차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판매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전시장 내·외관 교체를 진행한다. 르노삼성은 11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르노삼성 분당오리지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매와 AS 부문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판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국 188개 전시장 중 70곳에 새로운 SI(Shop Identity)를 적용하고 이를 2017년까지 전국 모든 전시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SI가 적용된 르노삼성 전시장은 출입구 외관에 르노그룹 특유의 노란색상이 입혀진 입체감 있는 옐로우 아치가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또 르노삼성의 새로운 전시장에는 즉각적인 고객 응대를 위해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 처음으로 적용됐다. 새로운 전시장 내부에는 차량 전시를 위한 공간도 새롭게 조성됐다. 르노삼성의 최상위 모델이 전시되는 ‘플래그십 존’, 르노그룹과 르노 모델을 소개하는 ‘르노 존’, 신차가 전시되는 ‘뉴 카 존’ 등이 신설돼 방문 고객들이 전시장 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대차 대덕밸리 ‘로보카폴리 키즈카페’.

또 르노삼성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선보일 예정인 중대형 세단 탈리스만(한국명 미정) 및 중형 SUV 신차(QM5 후속모델)를 비롯해 업그레이드된 각종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에서의 재도약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박동훈 부사장은 “전시장 공간 배치를 바꾸는 것과 함께 서비스 교육도 강화해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이 제대로 응대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페와 전시장의 컬래버레이션…현대차의 ‘테마 지점’

현대자동차는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테마 지점을 지속적으로 오픈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자동차와 미술의 조화’를 주제로 자동차 매장에 미술품을 함께 전시하는 형태의 지점((대치)을 오픈해 주목받았다. 커피 전문 브랜드 커피빈과 함께 커피와 차(車) 그리고 예술 작품이 공존하는 이색 테마 전시장을 여의도와 성내에 오픈했다.

또 꽃향기 나는 이색 자동차 전시장 ‘플라워샵’(서초·분당·운정·대전서부), 가족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로보카폴리 키즈카페’(수지·대덕밸리) 등 이색 테마지점을 열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현대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지점을 ‘골프 티칭 클리닉 테마지점’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현대차의 골프 테마지점은 미국 골프 클리닉 브랜드 ‘골프텍’과 협업을 통해 전시장 내 스크린 골프장과 첨단 스윙 분석 시스템, 피팅 룸을 갖췄다.

쌍용차는 지난 2012년 강남구 대치동에 수입차 전시장을 연상케 하는 ‘W-라운지’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시승과 구매,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 2013년부터 전체 판매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브랜드 이미지 통일 및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89개, 올해 말까지 100개 영업소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벤츠-BMW 서비스 강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서비스 품질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벤츠는 5성급 특급호텔 VIP 고객만이 받을 수 있는 컨시어지 서비스(1대1 맞춤 고객 서비스)를 수입차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고객이 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직원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은 정비센터에 정리된다. 차를 정비하는 동안 고객은 TV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이라면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여성 고객은 네일아트나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벤츠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원 서비스센터에 마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차량 구매자의 생활방식과 요구에 따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차를 유지·관리하는 고객 맞춤 서비스다.

BMW는 770억원을 들여 운전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동차 테마파크 ‘BMW 드라이빙센터’를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인근인 영종도에 만들었다. 축구장 33개 크기에 달하는 24만㎡ 부지에 2.6㎞ 트랙, 트레이닝아카데미, 농구장, 축구장, 친환경 공원, 서비스센터 등이 들어섰다.

서비스센터는 8대의 워크베이를 통해 하루 40대를 경정비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출구하는 BMW·MINI 차주를 대상으로 여행 기간 동안 차량을 정비해주고 공항까지 셔틀로 데려다주는 에어포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비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드라이빙센터를 찾아 드라이빙 교육, 서킷 체험, 박물관 관람 등 레저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월드키친 ‘키친놀러지 캠페인’ 론칭 쇼케이스

〈키친 + 테크놀러지〉

노하우 담은 2016년 신제품 선보여

“주방을 혁신해온 월드키친이 또 한번 주방을 바꾸겠습니다.” 코렐, 코닝웨어로 알려진 월드키친 김인욱 대표는 11일 서울 남산 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키친놀러지 캠페인’ 론칭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방의 혁신을 강조했다.

‘키친놀러지’는 ‘키친(주방)’과 ‘테크놀러지(기술)’의 합성어로 주방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월드키친은 주방용품에 대한 노하우를 소비자들과 공유하는 토탈 키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욱 대표는 “월드키친이 오랜 역사와 철학, 기술력이 담긴 다양한 브랜드들을 선보일 수 있는 이유는 혁신적의 소재의 발명과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 트렌드에 부응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월드키친은 세계 최초의 내열 유리 파이렉스 유리, 글라스 세라믹, 3중 압축 비트렐 유리 등 혁신적인 소재 발명했다. 또 이를 최초로 주방용품에 적용, 파이렉스(Pyrex), 비젼(Visions), 시카고 커틀러리(Chicago Cutlery), 코닝웨어(Corningware), 코렐(Corelle)을 잇달아 선보여 왔다.

이날 월드키친은 키친놀러지 캠페인과 함께 2016년 신제품도 미리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월드키친 글로벌 CEO 칼 워쇼스키,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표이자 CCO 크리스 말코스키 등도 함께 했다. 월드키친의 글로벌 CEO는 전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코렐 밀폐용기를 출시할 때도 방한한 바 있다.

행사장 한켠에는 파이렉스, 비젼, 시카고 커틀러리, 코닝웨어, 등 월드키친 대표 브랜드들의 역사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신제품이 전시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면세점·카카오 ‘관광경쟁력’ 맞손

롯데면세점과 카카오가 손잡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롯데면세점은 카카오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카오 오픈소스를 활용해 관광버스 주차 안내 애플리케이션과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는 자사가 보유한 지역정보, 택시 서비스 등을 오픈소스로 지원한다. 관광버스 주차 안내 앱은 면세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앱을 실행하면 인근 주차장 위치와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최단 거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 앱은 국내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주요 거점 택시 정류장에서 앱을 구동하면 해당 택시 정류장이 출발지로 자동 선택되며 영어와 중국어, 일어로 도착지 설정을 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카카오 제휴 사업 외에도 외국인 국내 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40호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라이프]
한은정의
새 영화 도전기
14

16

수능생의 힐링 아일랜드 '세빛섬'

야경 명소·문화 이벤트로 시민 가까이
"어벤져스2"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 "봇물"
11월 맞아 수능 수험생 위한 이벤트 개최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겼다.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세빛섬이다.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이자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다

한강변에 자리한 인공섬 세빛섬은 세계 최초의 물 위에 떠 있는 부체(浮體) 위에 건물을 지은 건축물이다. 꽃을 형상화한 가빛섬·채빛섬·솔빛섬과 한강 위에 떠있는 무대인 예빛섬으로 구성돼 있다. 레스토랑과 전시·공연 공간, 수상 레저 시설 등을 마련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개장 전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빛섬은 지난해 10월 정식 개장 이후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로 등장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영화 개봉 이후에는 주말에만 1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공연장과 전시장, 대형 LED 스크린 등의 시설을 갖춘 만큼 문화계의 관심도 크다.

최근에는 예술의전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발레, 콘서트, 전시 등 각종 문화 콘텐츠를 세빛섬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잠수교부터 예술의전당을 잇는 반포대로 일대에는 문화·예술로 특화한 '아트밸리'가 조성된다. 세빛섬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많은 이벤트로 시민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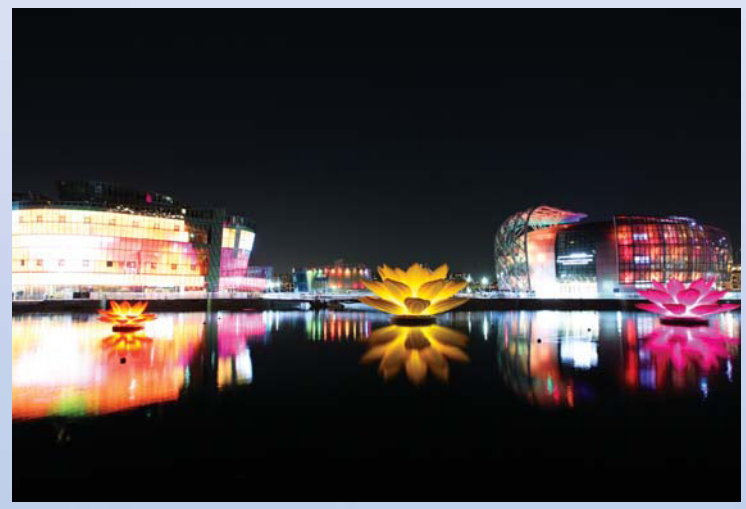
서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난 세빛섬은 시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 연다.

채빛섬 내에 있는 레스토랑 채빛퀴진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식재료 1001가지' 도서에서 선정한 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훼넬 샐러드·퀴노아 아보카도 샐러드·고등어 하코스시 등 이색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채빛퀴진은 300석 규모를 자랑하는 뷔페 레스토랑이다. 한식·일식·중식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인도 음식도 제공해 인기가 뜨겁다. 점심 140종, 저녁 160종 이상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평일 점심과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다.

12일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마련돼 있다. 시험 당일인 12일부터 14일까지 채빛퀴진 레스토랑을 찾는 수험생에게는 1인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을 포함, 4인 테이블에 한해 제공된다.

160여가지 이상의 수준 높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채빛퀴진이 있는 채빛섬


꽃밭을 연상하게 하는 세빛섬의 야경 화려하다.

한편 한강유람선도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벌인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강 위에서 세빛섬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험표를 제시하면 한강유람선을 본인 포함 동반 2인까지 최대 5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유람선과 라이브유람선만 탑승이 가능하다. 여의도선착장에서 출항하는 라이브유람선을 탑승할 경우 한강 상류 반포대교의 세빛섬을 관람하고 여의도로 돌아올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